

자체-식품-2014-88

청렴·**한**·세상

# 2014년 식품산업 분석 보고서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KHIDI



자체-식품-2014-88

청렴<sup>·</sup>한국<sup>·</sup>세상

## 2014년 식품산업 분석 보고서

2014 · 12

#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4년 자체사업인 『보건산업 동향 분석 및  
제공(식품산업)』 사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 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정 기 택

-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연구책임자 : 임 달 오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 연구자 : 고 가 영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연구원)  
김 수 범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연구원)

# 차 례

## 요약문 / 1

### 제1장 식품산업 주요지표 및 동향 / 11

1. USDA 수급 전망과 주요 지표 .....	11
2. 국내 식품물가 현황 .....	16
3. 식품 출하 현황과 전망 .....	21

### 제2장 세계 식품산업 동향 / 28

1. 세계 식품 시장규모 .....	28
1.1 지역별 시장규모 .....	29
1.2 품목별 시장규모 .....	32
1.3 기업별 시장규모 .....	39
2.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	41

### 제3장 국내 식품산업 동향 / 44

1. 시장규모 및 업체 현황 .....	44
1.1 시장규모 .....	44
1.2 업체 현황 .....	45
2. 식품 생산실적 현황 .....	48
2.1 생산 및 매출현황 .....	48
2.2 업종별 생산실적 현황 .....	50
2.3 품목별 생산실적 현황 .....	52
2.4 지역별 생산실적 현황 .....	62
2.5 업체별 생산실적 현황 .....	64
2.6 공시기업 경영성과 분석 .....	69
3.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현황 .....	78

## 부록 / 83

1. 2013년 글로벌 식품기업 상위 100대 기업 .....	85
2. 2013년 국내 식품기업 상위 100대 기업 .....	90

## 표차례

표 1-1	소제식품 수익성 전망(제당)	14
표 1-2	소제식품 수익성 전망(제분)	14
표 1-3	주요 제품 가격 인상현황	16
표 2-1	지역별 세계 식품 시장규모	29
표 2-2	국가별 식품 시장규모 순위	30
표 2-3	품목별 세계 식품 시장규모	32
표 2-4	가공식품 세부 품목별 세계 시장규모	34
표 2-5	비알콜음료 세부 품목별 세계 시장규모	38
표 2-6	세계 주요 식품기업 시장가치 순위	39
표 2-7	품목별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41
표 2-8	국가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2012)	43
표 3-1	식품 시장규모 현황	44
표 3-2	생산실적 보고업체 수 현황	45
표 3-3	품목군별 업체 수 현황	46
표 3-4	국내총생산(GDP) 대비 식품산업 생산액 현황	48
표 3-5	생산액 대비 매출액 추이(2005~2013)	49
표 3-6	업종별 생산액 현황(2011~2013)	50
표 3-7	업종별 매출액 현황(2011~2013)	51
표 3-8	식품 품목군별 생산액	52
표 3-9	식품 품목군별 매출액(2013)	54
표 3-10	품목군별 국내판매액	56
표 3-11	품목군별 수출액	58
표 3-12	수출액 상위 10개 품목	60
표 3-13	지역별 생산액	62
표 3-14	생산액 기준 식품 상위 10대 제조업체(2013)	64
표 3-15	생산액 기준 식품첨가물 상위 10대 제조업체(2013)	65
표 3-16	매출액 기준 식품 상위 10대 제조업체(2013)	66

표 3-17	매출액 기준 식품첨가물 상위 10대 제조업체(2013)	67
표 3-18	매출액증가율	70
표 3-19	총자산증가율	70
표 3-20	유형자산증가율	71
표 3-21	총자산 대비 유형자산 비율	72
표 3-22	매출원가율	72
표 3-23	판매관리비율	73
표 3-24	매출액영업이익률	74
표 3-25	매출액세전순이익률	74
표 3-26	매출액 대 EBIT	75
표 3-27	부채비율	76
표 3-28	자기자본비율	76
표 3-29	유동비율	77
표 3-30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78
표 3-31	건강기능식품 생산현황	79
표 3-32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생산액	80

## 그림차례

그림 1-1	국제 곡물가격 추이 .....	12
그림 1-2	곡물 재고량 추이 .....	12
그림 1-3	전체 곡물 재고율 추이 .....	12
그림 1-4	소맥 재고율 추이 .....	12
그림 1-5	옥수수 재고율 추이 .....	13
그림 1-6	대두 재고율 추이 .....	13
그림 1-7	곡물 수입 단가 추이 및 전망 .....	15
그림 1-8	음식료 소비자물가지수 추이(2005~2014) .....	17
그림 1-9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지수 추이(2005~2014) .....	18
그림 1-10	일반 소비 품목 중 식료품 비중 .....	19
그림 1-11	가계수지항목별 식료품·비주류음료 품목 비중 .....	20
그림 1-12	음식료 내수 출하지수 추이(2005~2014) .....	21
그림 1-13	음식료 수출 출하지수 추이(2005~2014) .....	22
그림 1-14	2014년 음식료 품목별 출하량 증감율 .....	23
그림 1-15	2014년 음식료 품목별 내수량 증감율 .....	24
그림 1-16	2014년 음식료 품목별 수출량 증감율 .....	25
그림 1-17	2014년 음식료 품목별 재고량 증감율 .....	26
그림 2-1	세계 식품 시장규모 .....	28
그림 2-2	가공식품 연평균성장률 상위 10대 세부 품목 .....	37
그림 2-3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	42
그림 2-4	국가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2012) .....	43
그림 3-1	2013년 기능성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점유율) .....	81
그림 3-2	2013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현황 .....	82
그림 3-3	2014 소비자 구입 금액 기준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	82

# 의료 산업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 요 약 문

## 1. 세계 식품산업 동향

□ 2013년 세계 식품시장의 세계시장 규모는 약 3조 1,165억달러로, 2012년 3조 138억달러 대비 3.4% 가량 성장한 것으로 추정

○ 지역별 시장 규모는 미주지역(Americas)이 1조 585억달러(34%), 유럽(Europe)시장 1조 279억달러(33%), 아시아-태평양(Asia-Pacific) 9,642억달러(30.9%), 아프리카 & 중동(Africa & Middle East) 539억달러(2.1%) 순

○ 아시아-태평양(Asia-Pacific)과 아프리카 & 중동(Africa & Middle East) 지역은 최근 5년간 연평균성장률 5%로 꾸준히 성장해 그 비중이 소폭 증가, 유럽과 아메리카는 연평균 2.5~3.5% 성장에 그쳐 그 비중이 소폭 감소

표 1 식품 지역별 세계시장 규모

(단위 : 억달러, %)

지역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성장률 ('09~'13)
World	27,048	28,057	29,110	30,138	31,165	3.6
	(100.0)	(100.0)	(100.0)	(100.0)	(100.0)	-
Europe	9,307	9,543	9,795	10,056	10,279	2.5
	(34.4)	(34.0)	(33.6)	(33.4)	(33.0)	-
Americas	9,288	9,625	9,946	10,258	10,585	3.3
	(34.3)	(34.3)	(34.2)	(34.0)	(34.0)	-
Asia-Pacific	7,922	8,329	8,777	9,199	9,642	5.0
	(29.3)	(29.7)	(30.1)	(30.5)	(30.9)	-
Africa & Middle East	531	561	593	625	658	5.5
	(2.0)	(2.0)	(2.0)	(2.1)	(2.1)	-

주 : 1) 식품 = (가공)식품(Food)+비알콜음료(Beverages - Non-Alcoholic), 건강기능식품 제외

2) ( ) 값은 세계시장 대비 비중임

자료 : Datamonitor, Interactive Consumer Database, 2014.10

표 2 국가별 식품 시장규모 순위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가	2011		2012		2013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1	미국	611,438.5	21.0	623,152.8	20.7	636,613.6	20.4
2	중국	408,899.2	14.0	437,642.5	14.5	469,807.9	15.1
3	일본	234,820.8	8.1	237,004.4	7.9	239,200.0	7.7
4	독일	177,123.3	6.1	180,575.0	6.0	183,406.1	5.9
5	브라질	164,248.9	5.6	171,728.0	5.7	179,222.3	5.8
6	영국	113,629.9	3.9	117,048.4	3.9	120,447.5	3.9
7	프랑스	115,238.1	4.0	117,517.3	3.9	118,896.1	3.8
8	멕시코	106,269.4	3.7	112,414.9	3.7	117,421.9	3.8
9	이탈리아	100,237.5	3.4	102,495.1	3.4	104,036.2	3.3
10	러시아	91,609.0	3.1	95,950.4	3.2	100,109.2	3.2
상위 10개국 합계		2,123,515	72.9	2,195,529	72.8	2,269,161	72.8
상위 20개국 합계		2,526,700.4	86.8	2,615,372.5	86.8	2,705,321.9	86.8
전체 합계		2,911,002.0	100.0	3,013,799.9	100.0	3,116,469.5	100.0

주 : 1) 식품 = (가공)식품(Food)+비알콜음료(Beverages - Non-Alcoholic)

\* 건강기능식품 제외

2) 2013년 시장규모 상위 국가 기준

자료 : Datamonitor, Interactive Consumer Database, 2014.10

- 국가별 식품 시장규모는 미국 6,366억달러(20.4%)로 시장규모 1위, 그 다음 중국 4,698억달러(15.1%), 일본 2,392(7.7%), 독일 1,834(5.9%), 브라질 1,792억달러(5.8%) 순
- 한국은 식품 세계 시장규모 순위 17위로(336억달러, 1.1%), 18위인 네덜란드(335억 달러, 1.1%)와 식품 시장규모가 비슷한 수준

표 3 품목별 세계 식품시장 규모

(단위 : 백만달러, %)

산업 분류	품목 시장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성장률 (’09~’13)
	Food	2,081,061	2,157,451	2,234,757	2,309,222	2,384,278	3.5
	Chilled food	674,634	692,215	711,624	731,216	748,767	2.6
	Bakery & Cereals	324,721	335,918	347,705	359,392	372,036	3.5
	Dairy food	308,700	322,772	335,140	347,137	359,117	3.9
	Dried food	149,066	157,929	166,595	174,094	182,097	5.1
	Confectionery	142,469	146,861	151,307	155,356	159,593	2.9
	Frozen food	106,310	109,691	113,160	116,747	119,896	3.1
	Savory Snacks	73,305	77,364	81,416	85,257	89,511	5.1
	Sauces, dressings & condiments	86,693	89,735	92,648	95,275	98,149	3.2
	Oils & fats	55,819	59,233	63,100	66,708	70,978	6.2
	Canned food	63,424	65,527	67,654	69,492	71,400	3.0
	Ice cream	51,348	53,617	55,856	58,206	60,581	4.2
	Spreads	18,747	19,469	20,221	20,847	21,511	3.5
	Soup	16,015	16,843	17,562	18,183	18,863	4.2
	Baby food	9,810	10,278	10,770	11,313	11,781	4.7
	Beverages - Non-Alcoholic	623,715	648,248	676,245	704,579	732,192	4.1
	Soft drinks	525,138	545,577	568,942	591,769	615,473	4.0
	Hot drinks	80,563	83,820	87,478	91,339	95,288	4.3
	Baby drinks	18,014	18,851	19,825	21,471	21,430	4.4
	합계	2,704,776	2,805,699	2,911,002	3,013,800	3,116,470	3.6

주 : 식품 = (가공)식품(Food)+비알콜음료(Beverages - Non-Alcoholic), \* 건강기능식품 제외

자료 : Datamonitor, Interactive Consumer Database, 2014.10

- 품목별 세계 시장규모는, 가공식품(food) 중에서는 냉장 식품(Chilled food)이 7,488억달러(34%)로 1위를 기록했고, 베이커리 & 시리얼(Bakery & Cereals) 3,720억달러(11.9%), 유제품(Dairy food) 3,591억달러(11.5%)등의 순
- 전년대비 증가율이 큰 품목은 유지류(Oils & fats)가 6.4%, Savory snacks(5.0%), Dried food(4.6%) 등 순

- 비알콜음료(Beverages - Non-Alcoholic) 중에서는 청량음료(Soft drinks)가 6,155 억달러로 식품 전체의 19.7%를 차지, 온음료(Hot drinks) 953 억달러(3.1%), 유아용 음료(Baby drinks) 3,652억달러(0.7%)등의 순

## 2. 국내 식품산업 동향

- 2013년 국내 식품시장 규모는 54조 6,902억원으로 이는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나, 2013년부터 생산실적에 새롭게 포함된 주류를 제외하면 총 생산액은 49조 3,662 억원으로 전년대비 0.8%가량 감소
  - 2013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액은 473,878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식품 산업 생산액은 3.32%, 전체 제조업 생산액 대비 11.63%를 차지

표 4 식품 시장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성장률 ('09~'13)
생산	40,408,833	34,548,230	40,318,186	43,478,331	48,869,700	4.9
수출	2,589,076	2,966,831	3,571,062	3,771,553	4,112,812	12.3
수입	6,719,512	7,425,710	8,970,489	10,052,019	9,933,299	10.3
무역수지	△4,130,437	△4,458,879	△5,399,428	△6,280,467	△5,820,486	-
시장규모	44,539,270	39,007,109	45,717,614	49,758,798	54,690,186	5.3

- 주 : 1) 시장규모는 생산 - 수출 + 수입  
 2) 무역수지는 수출 - 수입, △는 적자를 나타냄  
 3) 수출입액은 한국은행 원/달러 연평균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4) 식품 = (가공)식품 + 건강기능식품 + 식품첨가물 + 기구·용기·포장  
 \*식품 생산·수출은 2010년부터 축산물가공품 제외, 2013년부터 주류 포함
- 자료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 연도  
 2)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각 연도  
 3)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13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분석결과 발표」, 2014. 8. 6

- 품목별 생산액은 기구·용기·포장지가 5조 9,36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12.1%)을 차지, 기타식품류 9.7%(4조 7,492억원),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7.9%(3조8,727억원) 순
  - 전년대비 생산액 성장률은 용기류 117.7%, 건강기능식품 40.8%, 식품첨가물 14.5%, 절임식품 9.5%로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에 반해 당시럽류(△30.8%), 설탕(△19.6%), 식육 또는 알가공품(△19.5%), 음료류(△15.3%)은 생산액이 감소
  - 2013년 생산액 상위 10대 품목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4%로 전년의 73.7%에 비해 8.3%p 감소
- 품목군별 매출액은 6조 2,315억원을 기록한 기구 및 용기·포장지로 출하액과 수출액 모두에서 1위를 기록했고, 그 뒤를 이어 기타 식품류 5조 3,088억원,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4조 480억원으로 상위 3개 품목군을 차지
  - 매출액 상위 10품목이 전체 매출액의 66.2%로 전년대비 6.6%p(2012년 72.8%) 감소
-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군으로는 식품조사처리(73.2%), 식품첨가물(24.5%), 설탕(19.7%), 규격외 일반가공식품(13.1%), 기타식품류(12.2%) 등
  - 수출액 상위 세부 품목은 즉석섭취식품(도시락)(9.6%)이 전년과 같이 1위에 올랐고, 그 외에 유리·도자기·법랑(6.4%), 갈색설탕(6.0%), 수산물가공품(5.6%), 기타 주류(3.9%), 조미감(2.9%) 등

- 2013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1조 7,920억원으로 전년대비 5.2% 성장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성장률은 11.5%로 나타났으며 2009년 이후 지속 성장세
- 2013년 건강기능식품 총 생산액은 1조 4,820억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 총생산량은 3만 1,446톤으로 전년대비 9.1% 감소

표 5 건강기능식품 국내 시장규모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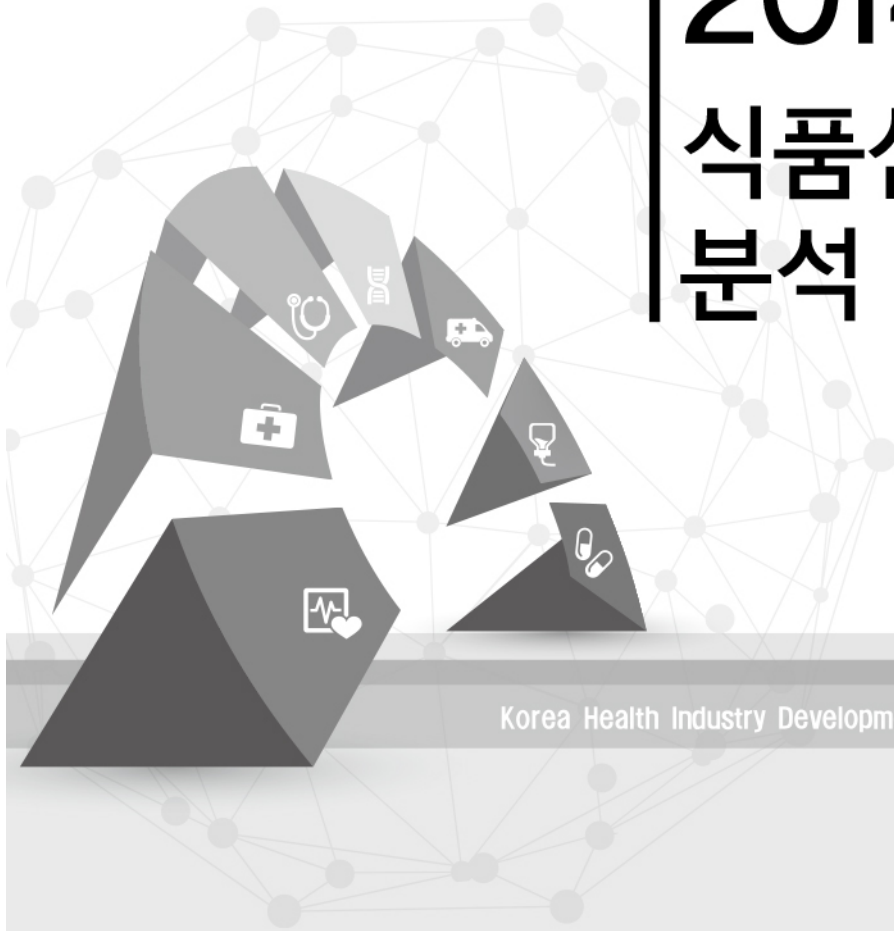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전년대비 성장률	연평균 성장률 (‘09~’13)
수입액	2,417	2,593	3,729	3,532	3,854	9.1	12.4
수출액	415	460	556	584	754	29.1	16.1
국내 시장규모	11,600	12,804	16,855	17,039	17,920	5.2	11.5

주: 시장규모 = 생산+수입-수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13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분석결과 발표」, 2014. 8. 6

- 품목별 건강기능식품 생산액을 살펴보면, 홍삼이 5,869억원(39.6%)로 가장 높은 생산액을 차지했고, 이어 개별인정형 2,324억원(15.7%), 비타민·무기질 1,747(11.8%) 등

# 2014년 식품산업 분석 보고서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 제1장 식품산업 주요지표 및 동향

### 1. USDA 수급 전망과 주요 지표

최근 미국 농무부(USDA)가 발표한 2014년 12월 세계곡물수급전망에 따르면, 2014/2015년 시즌 세계 곡물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24.66억 톤, 곡물 소비는 24.47억 톤으로 예상되어 곡물 시장이 초과 공급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4~2015년(2014년 4분기~2015년 3분기) 글로벌 기말 재고량은 전년 대비 3.9% 증가하여, 기말 재고율은 0.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재고 역시 높은 수준으로<sup>1)</sup> 곡물가격의 하향 안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 최대 곡물 생산국인 미국에서 선선한 날씨와 강우량으로 풍작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곡물 가격 폭락을 이끈 과잉공급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세계 4대 밀 생산국인 러시아의 곡물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sup>2)</sup>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나, 현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2010년과 같은 가격 폭등 사태의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 뉴스토마토, 2014.12.

2) 러시아(세계 4위 밀 수출국)는 최근 루블화 가치 하락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로, 자국의 곡물 공급 확보를 위해 곡물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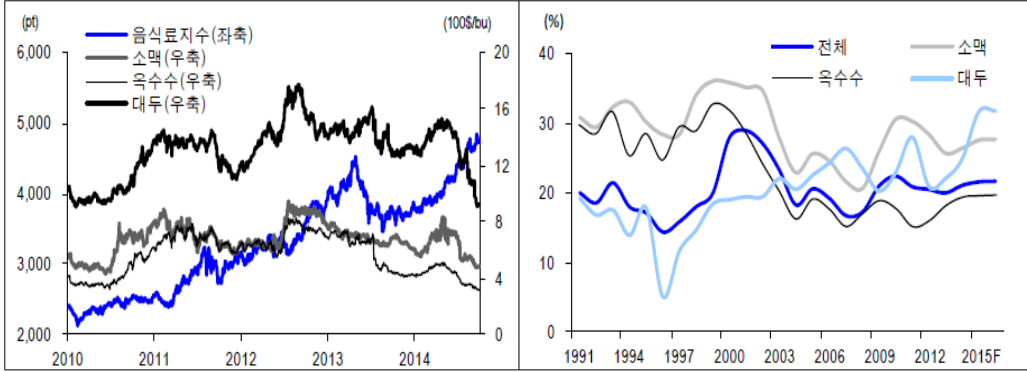


그림 1-1 국제 곡물가격 추이

그림 1-2 곡물 재고량 추이

자료 :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USDA 12월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14/15 소맥 재고전망은 전월 대비 약 2.0백만톤 상승하여(전월대비 1.0% 증가), 연간 재고전망은 전년대비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맥 공급 전망은 1.9백만톤 증가하였는데, 이는 캐나다 지역 생산전망이 1.8백만톤 가량 높아진 것과 관련한다.

또한 EU의 소비 전망치 하향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남아프리카 지역의 소비 전망치가 상향함에 따라 전체 소비 전망은 0.1백만톤 하향 전망되어 전체 소비 변동치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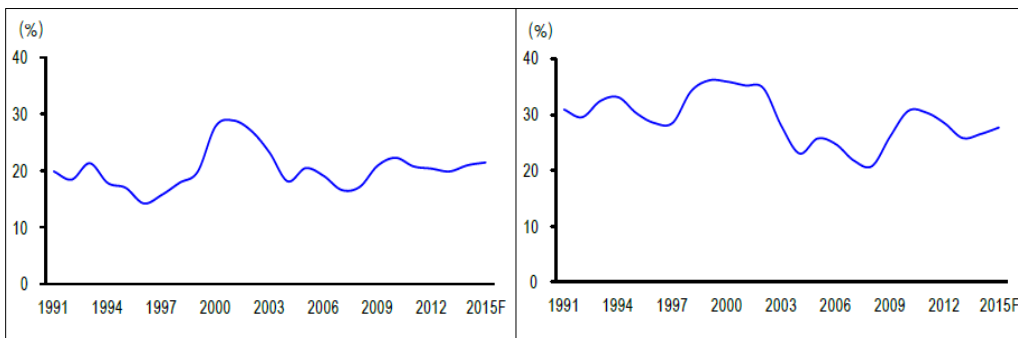


그림 1-3 전체 곡물 재고율 추이

그림 1-4 소맥 재고율 추이

자료 :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3) “USDA 12월 수급 전망과 주요 지표 동향”, 메리츠증권증권, 2014.12

2014/15 옥수수 재고전망은 전월 대비 약 0.7백만톤 상승하여(전월대비 0.4% 증가), 연간 재고전망은 전년대비 1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옥수수 공급 전망은 EU 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생산 전망치 상향으로 약 1.1백만톤 가량 상향 전망되고 있고, 옥수수 소비 전망은 미국 소비 전망 상향으로 약 0.4백만톤 상향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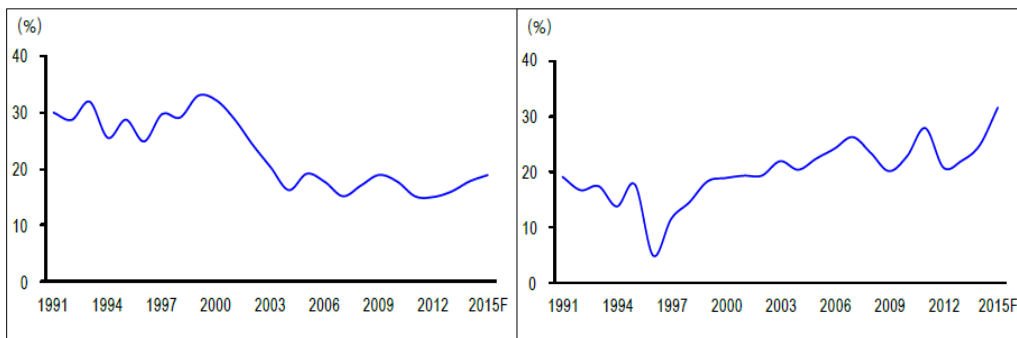


그림 1-5 옥수수 재고율 추이

그림 1-6 대두 재고율 추이

자료 :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2014/15 대두 재고전망은 전월 대비 약 0.4백만톤 하향하여(전월대비 0.5% 감소), 연간 재고전망은 전년대비 3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두 생산전망은 0.8백만톤 증가하였는데, 이는 파라과이 등에서 생산전망이 0.31백만톤 가량 높아진 원인이다. 반면 대두 소비 전망은 0.4백만톤 하향 전망되고 있다<sup>4)</sup>.

4) 메리츠증권증권, 2014.12

표 1-1 소재식품 수익성 전망(제당)

	2013		2014				2015	
	3Q	4Q	1Q	2Q	3Q	4QE	1QE	2QE
곡물가(USD)	16.7	17.7	16.4	17.2	15.9	16	15.3	15.3
QoQ(%)	-2.6	6	-7.3	5.3	-7.7	0.9	-4.9	0
KRW/USD	1,109	1,062	1,067	1,029	1,027	1,081	1,108	1,108
QoQ(%)	-0.8	-4.3	0.5	-3.6	-0.2	5.3	2.5	0
[QoQ 변화율]								
PPI	0.00%	0.00%	-2.50%	0.00%	0.00%	0.00%	0.00%	0.00%
원재료지수	-2.90%	-8.10%	-6.80%	6.70%	-11%	5.00%	-2.50%	3.30%
이익률	1%p	4%p	1%p	-3%p	5%p	-3%p	1%p	-2%p

자료 : 메리츠증권증권 Industry Brief

그에 따라 소재식품의 경우 원맥 가격 상승과 환율 영향 등으로 2015년 제분업계의 수익 개선 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당 업체는 2014년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1-2 소재식품 수익성 전망(제분)

	2013		2014				2015	
	3Q	4Q	1Q	2Q	3Q	4QE	1QE	2QE
곡물가(USD)	6.5	6.6	6.2	6.5	5.3	5.4	5.9	5.9
QoQ(%)	-6.3	0.6	-6.3	6.3	-18.8	1	10.1	0
KRW/USD	1,109	1,062	1,067	1,029	1,027	1,081	1,108	1,108
QoQ(%)	-0.8	-4.3	0.5	-3.6	-0.2	5.3	2.5	0
[QoQ 변화율]								
PPI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원재료지수	-9.60%	-7.00%	-10%	1.40%	-9.90%	6.10%	-14%	3.40%
이익률	5%p	3%p	5%p	-1%p	5%p	-3%p	7%p	-2%p

자료 : 메리츠증권증권 Industry Bri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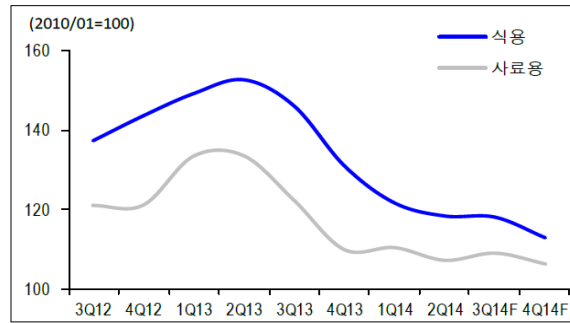


그림 1-7 곡물 수입 단가 추이 및 전망

자료 :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요컨대 2015년에는 곡물 가격의 지속적 하락이 예상되는 반면, 환율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수입 원재료가 대부분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국내 음식료 업체의 비용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근래 경기부진 등의 여파로 식품시장에서 소비량 증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성장력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국내 식품물가 현황

식품은 필수재로 경기가 악화되더라도 소비를 빠르게 감소시키지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식품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수요의 비탄력적 성향에 의해 다른 소비재의 가격인상 보다 물가 상승에 더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런데 최근 국제곡물가격 등 원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 시기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하반기부터~2014년 상반기 까지 음식료 업계의 잇따른 가격 인상이 실시되었다.

표 1-3 주요 제품 가격 인상현황

인상시기	업체명	품목	인상률
2013.09	서울우유	흰우유	10.8%
2013.09	매일유업, 남양유업	흰우유	8.5%(리터당 200원)
2013.09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요플레 등	7.3~8.3%
2013.11	서울우유	생크림,버터,발효유 등	8~10%
2013.11	빙그레	아이스크림(투게더,엑설런트)	10~16.7%
2013.11	롯데제과	과자 9개 품목	2.9~11.1%
2013.12	해태제과	과자 7개 품목	평균 8.7%
2013.12	오리온	과자 6개 품목	평균 11.9%
2013.12	LG생활건강	음료	6.50%
2014.02	삼립식품	빵	6.40%
2014.02	롯데칠성	음료	6.50%
2014.04	남양유업	분유	8.2~11.1%
2014.04	CJ제일제당	쇠고기다시다 등 17개 품목	5.2~9.6%
2014.05	롯데푸드	햄	9.40%
2014.06	CJ제일제당	햄	8.8~9.3%
2014.06	동원F&B	햄	9.60%
2014.08	동서식품	인스턴트 커피, 커피믹스	4.8~4.9%

자료: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각종 언론보도 종합

이러한 음식료 업체의 가격인상은 2012년~2014년 1~2%대의 낮은 물가인상률<sup>5)</sup>과 대비하여, 인상폭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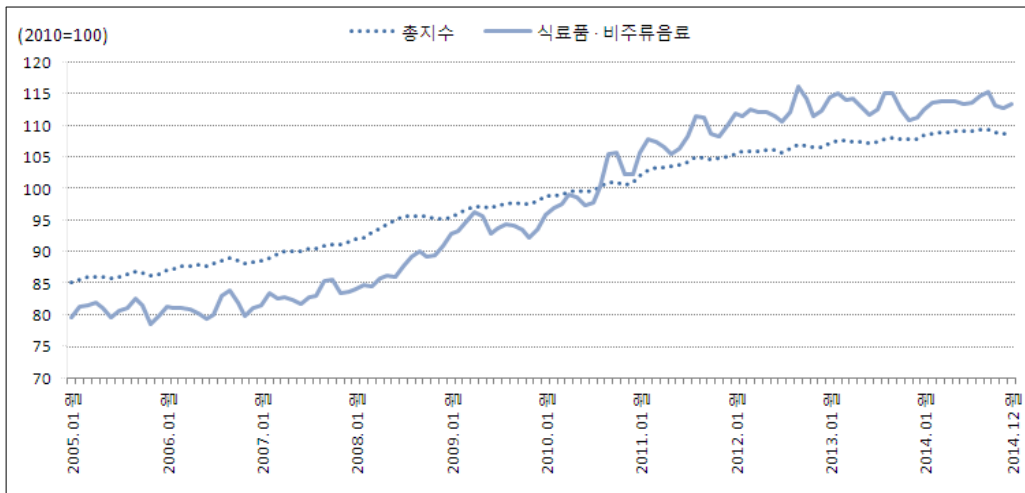


그림 1-8 음식료 소비자물가지수 추이(2005~2014)

주: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지출목적별: 2010=100)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지난 10년간의 소비자물가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이후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는 전체 소비자물가(총지수) 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2010년 하반기 이후로는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추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위축된 경기 상황 하에서 필수 소비재인 음식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그 이후 가격의 하방경직성 등으로 인해 식료품·비주류음료의 가격이 유지된(또는 지속 인상된) 것에 따른 원인으로 보인다.

5)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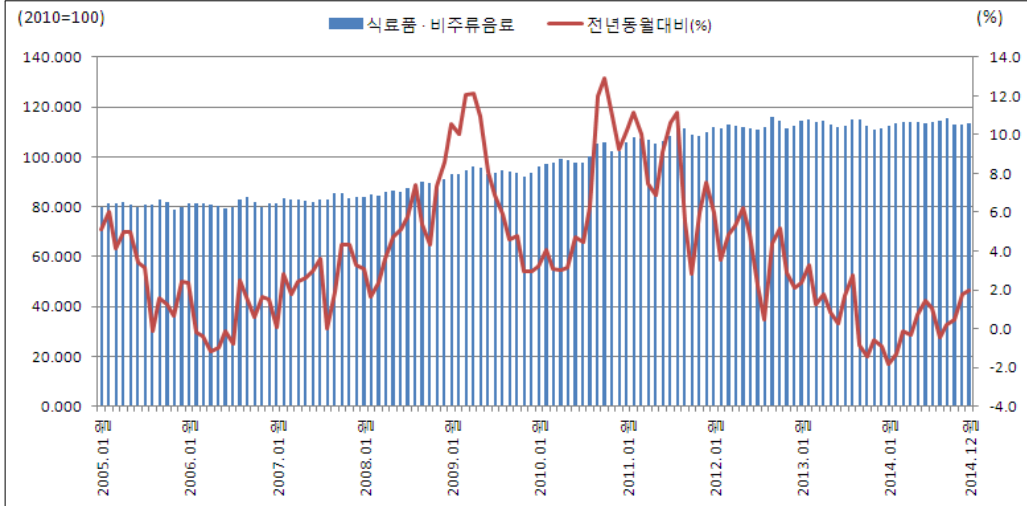


그림 1-9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지수 추이(2005~2014)

주: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지출목적별: 2010=100), 증감율은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2014년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식료품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대비 0.3%p 상승하여 역대 최저 수준까지 하락하였고, 앵겔계수 또한 약 13.7%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앵겔계수 하락은 2014년 전체 소비지출이 전년대비 2.8%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이 전년대비 0.8% 증가에 그친데 따른 것이다<sup>6)</sup>. 앵겔계수는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최근 저물가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통계 수치상의 저물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체감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평가 또한 상존한다.

이는 세부 품목별로 식료품 물가를 살펴볼 때, 전년대비 육류 9.1% 상승, 유유·치즈

6)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7)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주류음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3.8%로 최근 3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통신장비(151.3%), (교통비용 중)기타운송기구구입(49.4%), (오락·문화 비용 중)기록매체(45.6%), (교통비용 중)자동차구입(29.8%) 등에서 지출 증가가 더욱 크게 나타난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및 계란 6.6% 상승, 과자·빙과류 및 당류 8.1% 상승, 식용유지 2.5% 상승, 생수·청량 음료·과일주스 및 채소주스가 1.9% 상승으로 나타나 2014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대비 1.3% 상승) 보다 높은 상승을 보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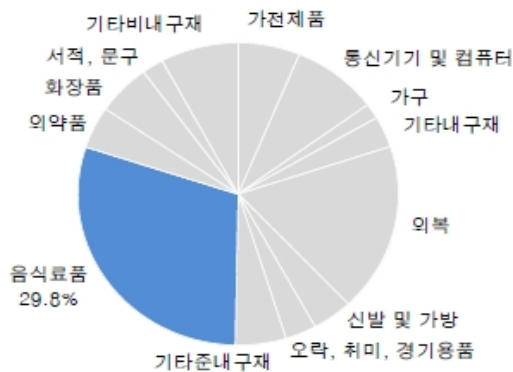


그림 1-10 일반 소비 품목 중 식료품 비중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전체 소비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9.8%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소비구조’ 관련 설문조사<sup>8)</sup>에 따르면 생활비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 2위가 ‘식료품비’(21.5%)<sup>9)</sup> 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생활비에 대한 식료품비 부담은 소득이 낮은 가계일수록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더욱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14년 식품 및 기타 물품의 구입 빈도는 월평균 4.6회로 전년대비 월 1회 가량이 증가하였고, 1회당 장보기 비용은 90,300원에 달했으며, 지난 1년간 식품관련 소비는 증가하는 양상으로 특히 가공식품 지출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했다는 응답이 30.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sup>10)11)</sup>. 즉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근래 가공식품의 가격인상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8) “소비 주도층은 4-50대 전업주부”, 현안과 과제 13-42, 현대경제연구원

9) 생활비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은 ‘전월세, 관리비 등 주거관련 지출’(22.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식료품비’(21.5%), ‘교육비’(21.4%) 등의 순

10) 전국 만 20~60세 이하 남녀 성인 대상, 표본 수는 총 4,000명(조사기간: 2014.8.15~10.28)

11) 전년대비 가공식품 소비 지출 변화가 늘었다는 소비자 30.5%인 반면 소비 지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자는 14.7%에 불과(54.8%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

확대되었으리라 판단되며, 또한 이는 소비자의 식료품 체감물가가 여전히 높게 작용하는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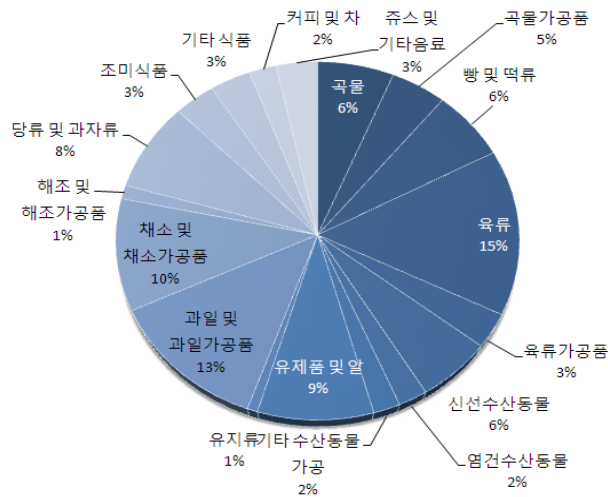


그림 1-11 가계수지항목별 식료품비주류음료 품목 비중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4년 음식료 업체를 포함한 제조업 전반이 내수 경기 부진의 장기화와 소비 부진으로 인해 매출 성장의 둔화, 영업이익 감소 등 어려움을 겪었다.

포화된 (가공)식품 시장에서 국내 음식료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식품 수요의 비탄력적 가격 특성 및 가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식품의 적정 물가 수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책적 보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3. 식품 출하 현황과 전망

통계청이 발표한 식료품 제조업의 내수 출하지수는<sup>12)</sup> 2014년 1분기~3분기까지 전년동월대비 각각 1.36%, 2.94%, 1.74% 증가하였고, 4분기에 이르러 1.24% 감소하였다.

음료 제조업 내수 출하지수는 2014년에는 전년에 비해 분기별로 큰 변동을 보였는데 1~2분기 각각 3.82%, 5.93%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3~4분기에는 각각  $\Delta 1.19\%$ ,  $\Delta 2.63\%$ 로 3분기에 이르러 감소 추세로 전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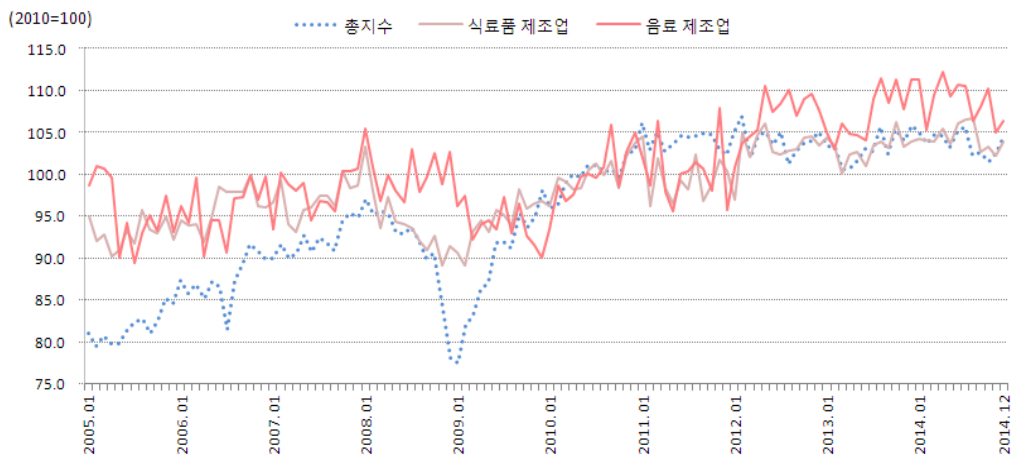


그림 1-12 음식료 내수 출하지수 추이(2005~2014)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내수 출하지수, 계절조정)

이는 총지수가 1분기와 2분기 각각 1.95%, 2.45% 증가한 반면, 3분기와 4분기 각각  $\Delta 0.1\%$ ,  $\Delta 2.0\%$ 로 하락 전환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최근의 소비 부진으로 인한 영향과 관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내수출하지수: 자체 생산한 제품을 국내 판매업자, 타사업체, 기관, 단체, 개인소비자 등에 판매하는 활동의 단기 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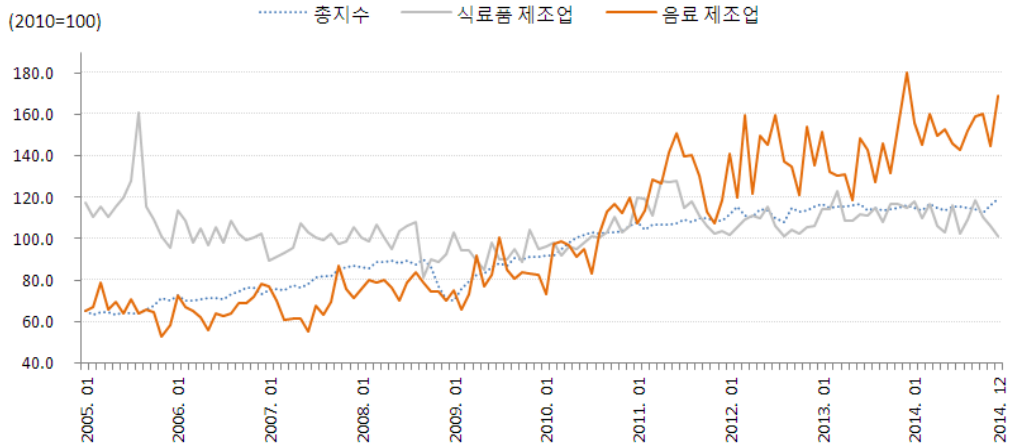


그림 1-13 음식료 수출 출하지수 추이(2005~2014)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수출 출하지수, 계절조정)

통계청이 발표한 식료품 제조업의 수출 출하지수는<sup>13)</sup> 2014년 전분기에 걸쳐 전년 동기대비 저조한 양상을 보였는데, 전년동기대비  $\Delta 2.0\%$ (1분기)  $\rightarrow \Delta 1.2\%$ (2분기)  $\rightarrow \Delta 1.2\% \rightarrow \Delta 8.4\%$  로 나타나 2013년에 비해 수출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에 반해 음료 제조업 수출 출하지수는 전년동기대비  $11.4\%$ (1분기)  $\rightarrow 12.7\%$ (2분기)  $\rightarrow 8.9\%$ (3분기)  $\rightarrow 1.7\%$ (4분기) 로 분기별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식료품 제조업 부분보다 음료 제조업에서 전년에 비해 수출이 다소 원활했던 것으로 보인다.

13) 수출출하지수: 외국에 판매하는 활동의 단기 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하여 작성하는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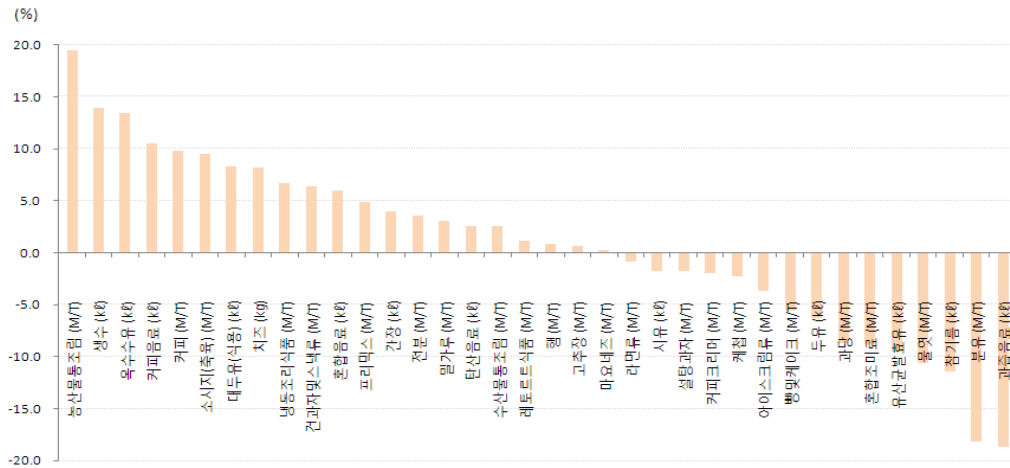


그림 1-14 2014년 음식료 품목별 출하량 증감율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한편 2014년 음식료 품목별 출하량 증감율을 살펴보면, 전체 36개 품목<sup>14)</sup> 중 15개 품목에서 전년대비 출하량이 감소를 기록하였다.

음식료 내수 출하량은 지난해에 비해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3년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sup>15)</sup> 및 남양유업 사태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음식료 품목별 출하량을 보면, 2014년 전년대비 출하량이 증가율이 큰 품목으로는 농산물통조림(19.4%), 생수(14.0%), 옥수수유(13.5%), 커피음료(10.5%), 커피(9.8%)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반해 과즙음료(△18.7%), 분유(△18.2%), 참기름(△11.5%), 물엿(△10.6%), 유산균발효유(△9.5%) 등은 전년대비 출하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 '도축/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일/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곡물가공품/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기준 36개 품목

15)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3일 이내'로 확대하고, 영업제한 시간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012년 11월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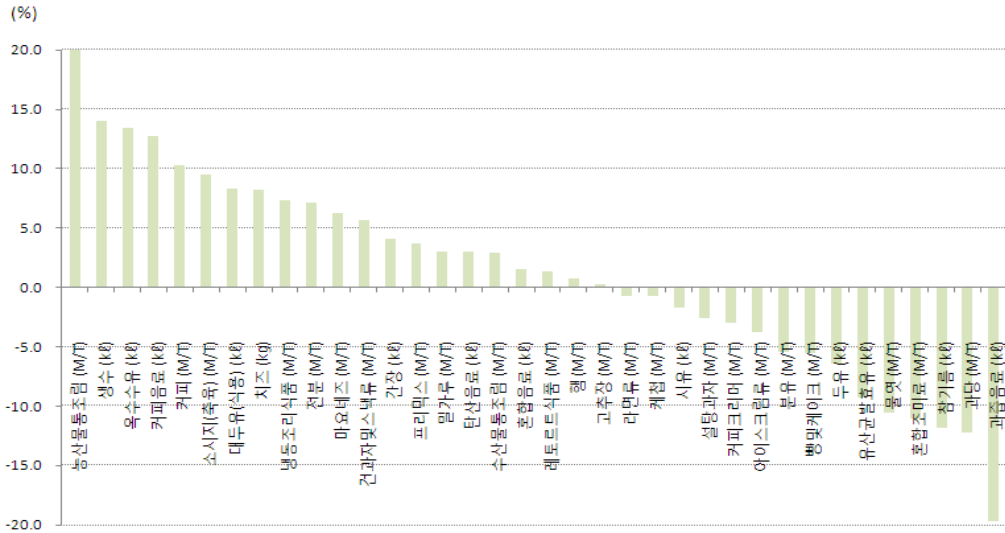


그림 1-15 2014년 음식료 품목별 내수량 증감율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음식료 품목별 내수량은 농산물통조림(20.0%), 생수(14.0%), 옥수수유(13.4%), 커피음료(12.8%), 커피(10.3%) 등 순으로 증가율이 크게 나타나 전체 출하량 증감율과 유사한 수치를 보여, 내수 위주인 국내 식품산업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반면 과즙음료(△19.7%), 과당(△12.2%), 참기름(△11.8%), 혼합조미료(△11.1%), 물엿(△10.6%) 등의 품목은 전년대비 내수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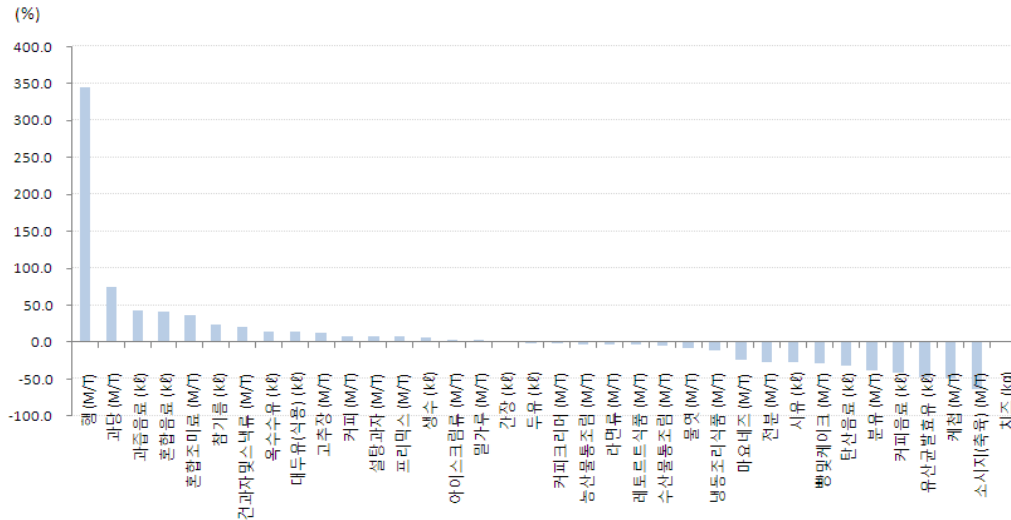


그림 1-16 2014년 음식료 품목별 수출량 증감률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2014년 음식료 품목별 수출량에서는 햄(345.7%), 과당(74.7%), 과즙음료(42.7%), 혼합음료(41.7%), 혼합조미료(36.7%) 등 순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으며, 한류의 영향 등에 힘입어 건과자 및 스낵류(20.4%)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년대비 수출량 감소율이 큰 품목으로는 소시지(축육)( $\Delta$ 64.2%), 케첩( $\Delta$ 48.8%), 유산균발효유( $\Delta$ 47.7%), 커피음료( $\Delta$ 40.7%), 분유( $\Delta$ 37.9%) 등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출 인기 품목으로 알려진 바 있는 마요네즈( $\Delta$ 23.9%)와 라면류( $\Delta$ 3.1%)의 경우 전년대비 수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치즈의 경우 수출량은 전년에 이어 전무한 것으로 나와 생산량의 전량이 내수로 소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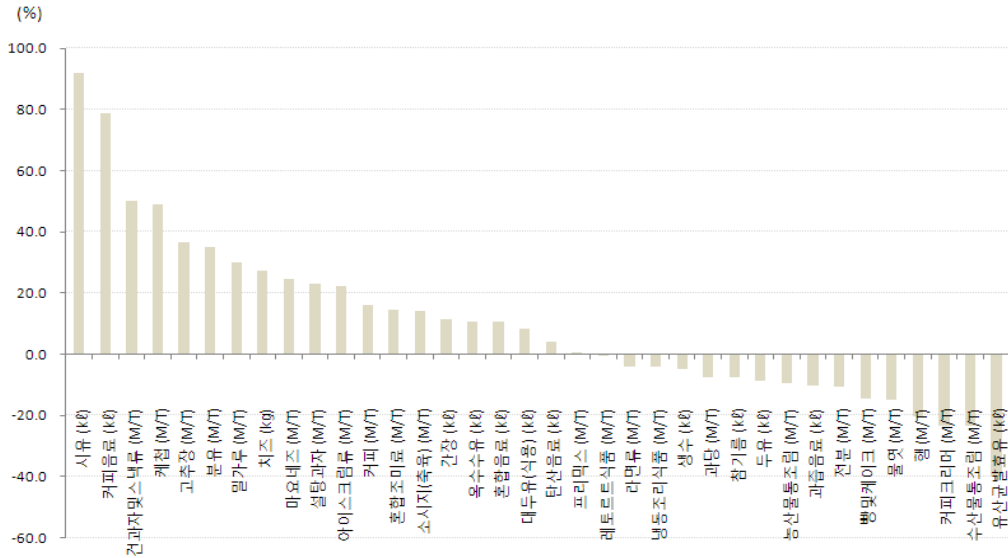


그림 1-17 2014년 음식료 품목별 재고량 증감율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2014년 음식료 품목별 재고량은 시유(91.8%), 커피음료(78.6%), 건과자 및 스낵류(49.9%), 케첩(49.1%), 고추장(36.7%) 등 순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크게 나타나 해당 품목에 대한 수요 예측 등이 미진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시유(市乳, market milk)<sup>16)</sup>의 재고량 증가는 올해 초 온화한 겨울 날씨와 비교적 덥지 않은 여름 기온으로 인해 우유 생산량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 이라 할 수 있다<sup>17)</sup>. 그에 더해 지난해 8월 ‘원유가격연동제’의 도입<sup>18)</sup> 이후, 우유 가격은 인상된 반면 출산을 저하로 주 소비 계층인 어린이·청소년 수가 감소하고 대체식품 또한 증가함에 따라 우유 소비량이 생산량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 재고량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여겨진다.

16) 시유는 우유를 가열 살균하여 소비자가 위생상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작은 단위용량으로 포장한 것이며 매일 배달된다는 뜻에서 시유(city milk 또는 market milk)라고 함(식품과학기술대사전)  
 17) 젓소 한 마리당 우유 생산량은 2013년 8월 28kg에서 2014년 8월 30kg으로 증가함(매일경제, 2014.11.)  
 18) 원유가격 연동제는 우유가격을 생산비용에 연동시킨 제도로, 이 제도에 따르면 우유가격은 생산원가에 따라 결정됨  
 \*원유기본가격 = 기본가격(매년 통계청 우유생산비 증감액 가감) + 변동원가(전년소비자물가인상률 적용)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식료품은 필수재로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는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2014년 세계 경제는 2분기 이후 안정적 성장세에 접어든 미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로존은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났으나 높은 실업률과 신용 위축으로 미약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경제에서도 성장속도가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sup>19)</sup>.

이로 인해 음식료 업체를 포함한 제조업 전반은 지난해에 이어 내수 경기 부진의 장기화와 가계 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여력의 감소 등으로 인한 매출 성장의 둔화, 영업이익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2014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1.9%로 2013년 2.0% 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내수 위주인 국내 식품시장은 인구 수 정체,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한 소비성향 하락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국내 음식료 업체가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 판로 개척에 힘써 수출 성장을 견인하는 노력을 더욱 경주하는 한편, 차별화된 제품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시장에서 보다 전략적 포지셔닝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9) “2015 대내외 경기·금융시장 대예측 세미나”, 한국경제신문, 2014.12.

## 제2장 세계 식품산업 동향

### 1. 세계 식품 시장규모

2013년 세계 식품 시장규모<sup>20)</sup>는 약 3조 1,165억달러로, 2012년 3조 138억달러 대비 3.4% 가량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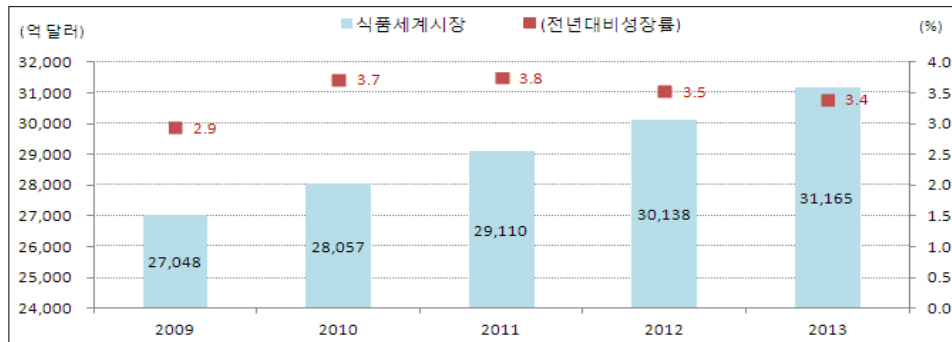


그림 2-1 세계 식품 시장규모

주 : 식품 = (가공)식품(Food)+비알콜음료(Beverages - Non-Alcoholic)

\* 건강기능식품 제외

자료 : Datamonitor, Interactive Consumer Database, 2014.10

20) 가공식품 및 비알콜음료 기준

또한 최근 5년간 연평균성장률('09-'13)은 3.6%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나, 2011년을 기점으로 전년대비 성장폭이 최근 3년 새 소폭 감소하는 양상 또한 나타나고 있다.

## 1.1 지역별 시장규모

지역별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미주지역(Americas)이 1조 585억달러로 세계시장의 약 34%를 차지해 규모가 가장 크고, 유럽(Europe)시장 1조 279억달러(33%), 아시아-태평양(Asia-Pacific) 9,642억달러(30.9%), 아프리카&중동(Africa & Middle East) 539억달러(2.1%)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 지역별 세계 식품 시장규모

(단위 : 억달러, %)

지역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성장률 ( '09~'13)
World	27,048	28,057	29,110	30,138	31,165	3.6
	(100.0)	(100.0)	(100.0)	(100.0)	(100.0)	-
Europe	9,307	9,543	9,795	10,056	10,279	2.5
	(34.4)	(34.0)	(33.6)	(33.4)	(33.0)	-
Americas	9,288	9,625	9,946	10,258	10,585	3.3
	(34.3)	(34.3)	(34.2)	(34.0)	(34.0)	-
Asia-Pacific	7,922	8,329	8,777	9,199	9,642	5.0
	(29.3)	(29.7)	(30.1)	(30.5)	(30.9)	-
Africa & Middle East	531	561	593	625	658	5.5
	(2.0)	(2.0)	(2.0)	(2.1)	(2.1)	-

주 : 1) 식품 = (가공)식품(Food)+비알콜음료(Beverages - Non-Alcoholic)

\* 건강기능식품 제외

2) ( ) 값은 세계시장 대비 비중임

자료 : Datamonitor, Interactive Consumer Database, 2014.10

아시아-태평양(Asia-Pacific)과 아프리카 & 중동(Africa & Middle East) 지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연평균성장률 5%이상 꾸준한 성장으로 그 비중이 소폭 증가한 반면, 유럽과 아메리카는 연평균 2.5~3.5% 성장에 그쳐 그 비중이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2-2 국가별 식품 시장규모 순위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가	2011		2012		2013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1	미국	611,438.5	21.0	623,152.8	20.7	636,613.6	20.4
2	중국	408,899.2	14.0	437,642.5	14.5	469,807.9	15.1
3	일본	234,820.8	8.1	237,004.4	7.9	239,200.0	7.7
4	독일	177,123.3	6.1	180,575.0	6.0	183,406.1	5.9
5	브라질	164,248.9	5.6	171,728.0	5.7	179,222.3	5.8
6	영국	113,629.9	3.9	117,048.4	3.9	120,447.5	3.9
7	프랑스	115,238.1	4.0	117,517.3	3.9	118,896.1	3.8
8	멕시코	106,269.4	3.7	112,414.9	3.7	117,421.9	3.8
9	이탈리아	100,237.5	3.4	102,495.1	3.4	104,036.2	3.3
10	러시아	91,609.0	3.1	95,950.4	3.2	100,109.2	3.2
11	스페인	76,477.3	2.6	78,024.7	2.6	79,793.9	2.6
12	캐나다	56,181.1	1.9	57,574.9	1.9	59,115.7	1.9
13	호주	53,660.3	1.8	55,345.0	1.8	56,763.6	1.8
14	터키	38,741.5	1.3	40,800.6	1.4	42,554.2	1.4
15	폴란드	35,150.3	1.2	36,612.9	1.2	37,394.4	1.2
16	인도	27,831.7	1.0	31,387.9	1.0	35,308.3	1.1
17	한국	31,736.8	1.1	32,556.5	1.1	33,626.6	1.1
18	네덜란드	32,217.1	1.1	32,907.6	1.1	33,447.3	1.1
19	사우디아라비아	27,522.3	0.9	29,056.8	1.0	30,417.4	1.0
20	아르헨티나	23,667.4	0.8	25,576.8	0.8	27,739.7	0.9
상위 10개국 합계		2,123,515	72.9	2,195,529	72.8	2,269,161	72.8

순위	국가	2011		2012		2013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상위 20개국 합계		2,526,700.4	86.8	2,615,372.5	86.8	2,705,321.9	86.8
전체 합계		2,911,002.0	100.0	3,013,799.9	100.0	3,116,469.5	100.0

주 : 1) 식품 = (가공)식품(Food)+비알콜음료(Beverages - Non-Alcoholic)

\* 건강기능식품 제외

2) 2013년 시장규모 상위 국가 기준

자료 : Datamonitor, Interactive Consumer Database, 2014.10

국가별 식품 시장규모를 보면, 미국이 6,366억달러로 전 세계 시장의 20.4%를 차지해 시장규모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 중국 4,698억달러(15.1%), 일본 2,392(7.7%), 독일 1,834(5.9%), 브라질 1,792억달러(5.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 식품 세계 시장규모 순위 17위로(336억달러, 1.1%) 나타나, 18위인 네덜란드(335억달러, 1.1%)와 식품 시장규모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감소세를 보인 반면 중국, 브라질, 멕시코 등은 그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시장규모 상위 10개국의 시장규모 합계는 2조 2,692억달러로 73%, 상위 20개국의 시장규모는 약 3조1,165억달러로 세계 시장규모의 86.8%를 차지하고 있다.

## 1.2 품목별 시장규모

2013년 식품 시장은 가공식품(food)이 76.5%, 비알콜음료가 2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세계 시장규모를 보면<sup>21)</sup>, 가공식품(food) 중에서는 냉장 식품(Chilled food)이 7,488억달러로 식품시장 전체의 34%를 차지하여<sup>22)</sup> 1위를 기록했고, 베이커리 & 시리얼(Bakery & Cereals) 3,720억달러(11.9%), 유제품(Dairy food) 3,591억달러(11.5%)등의 순으로 시장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지류(Oils & fats)는 지난해에 이어 전년대비 6.4%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가공 식품품목 중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했고, Savory snacks(5.0%), Dried food(4.6%) 등 순으로 전년대비 높은 성장 양상을 보였다.

표 2-3 품목별 세계 식품 시장규모

(단위 : 백만달러, %)

산업 분류	품목 시장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성장률 ('09~'13)
	Food	2,081,061	2,157,451	2,234,757	2,309,222	2,384,278	3.5
	Chilled food	674,634	692,215	711,624	731,216	748,767	2.6
	Bakery & Cereals	324,721	335,918	347,705	359,392	372,036	3.5
	Dairy food	308,700	322,772	335,140	347,137	359,117	3.9
	Dried food	149,066	157,929	166,595	174,094	182,097	5.1
	Confectionery	142,469	146,861	151,307	155,356	159,593	2.9
	Frozen food	106,310	109,691	113,160	116,747	119,896	3.1
	Savory Snacks	73,305	77,364	81,416	85,257	89,511	5.1
	Sauces, dressings & condiments	86,693	89,735	92,648	95,275	98,149	3.2
	Oils & fats	55,819	59,233	63,100	66,708	70,978	6.2

21) Datamonitor는 Industry>Market>Category>Segment>Subsegment 로 산업을 분류하며, 여기서는 품목은 Market 단계에 해당함

22) “식품 = (가공)식품(Food)+비알콜음료(Beverages - Non-Alcoholic)” 기준으로 각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함(※ 건강기능식품 제외)

산업 분류	품목 시장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성장률 ('09~'13)
	Canned food	63,424	65,527	67,654	69,492	71,400	3.0
	Ice cream	51,348	53,617	55,856	58,206	60,581	4.2
	Spreads	18,747	19,469	20,221	20,847	21,511	3.5
	Soup	16,015	16,843	17,562	18,183	18,863	4.2
	Baby food	9,810	10,278	10,770	11,313	11,781	4.7
	Beverages - Non-Alcoholic	623,715	648,248	676,245	704,579	732,192	4.1
	Soft drinks	525,138	545,577	568,942	591,769	615,473	4.0
	Hot drinks	80,563	83,820	87,478	91,339	95,288	4.3
	Baby drinks	18,014	18,851	19,825	21,471	21,430	4.4
	합계	2,704,776	2,805,699	2,911,002	3,013,800	3,116,470	3.6

주 : 식품 = (가공)식품(Food)+비알콜음료(Beverages - Non-Alcoholic)

\* 건강기능식품 제외

자료 : Datamonitor, Interactive Consumer Database, 2014.10

또한 비알콜음료(Beverages - Non-Alcoholic) 중에서는 청량음료(Soft drinks)가 6,155억달러로 식품 전체의 19.7%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온음료(Hot drinks) 953억달러(3.1%), 유아용 음료(Baby drinks) 3,652억달러(0.7%)등의 순으로 시장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용 음료(Baby drinks)의 경우 전년대비  $\Delta 0.2\%$ 로 성장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청량음료(Soft drinks)와 온음료(Hot drinks)는 4%내외의 견고한 성장률을 보였다.

표 2-4 가공식품 세부 품목별 세계 시장규모

(단위 : 백만달러, %)

품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중	연평균 성장률 (09~13)
Food(합계)	2,081,061	2,157,451	2,234,757	2,309,222	2,384,278	100.0	3.5
Chilled food	674,634	692,215	711,624	731,216	748,767	31.4	2.6
Chilled meat products	347,385	355,489	364,909	373,786	380,987	16.0	2.3
Deli food	145,557	150,793	156,187	161,737	167,322	7.0	3.5
Chilled fish/seafood	109,506	111,226	113,186	115,634	117,775	4.9	1.8
Sandwiches/salads	51,205	52,850	54,556	56,306	57,989	2.4	3.2
Chilled ready meals	12,977	13,538	14,123	14,727	15,319	0.6	4.2
Chilled pizza	4,763	4,912	5,075	5,241	5,409	0.2	3.2
Chilled fresh pasta	3,241	3,406	3,589	3,784	3,967	0.2	5.2
Bakery & Cereals	324,721	335,918	347,705	359,392	372,036	15.6	3.5
Bread & rolls	159,253	163,779	168,153	172,569	177,253	7.4	2.7
Cakes & pastries	66,836	70,108	74,053	78,063	82,434	3.5	5.4
Cookies (sweet biscuits)	38,841	40,015	41,439	42,782	44,184	1.9	3.3
Breakfast cereals	28,019	28,946	29,747	30,602	31,441	1.3	2.9
Morning goods	16,460	17,103	17,705	18,198	18,887	0.8	3.5
Crackers (savory biscuits)	15,312	15,967	16,608	17,178	17,837	0.7	3.9
Dairy food	308,700	322,772	335,140	347,137	359,117	15.1	3.9
Milk	106,840	110,164	112,683	115,284	118,680	5.0	2.7
Cheese	80,894	85,613	89,645	93,481	96,737	4.1	4.6
Yogurt	45,938	48,478	50,881	53,151	55,264	2.3	4.7
Spreadable fats	34,270	35,499	36,701	37,875	39,159	1.6	3.4
Soy Products	9,387	10,666	11,778	12,870	13,840	0.6	10.2
Cream	14,515	14,947	15,444	15,885	16,302	0.7	2.9
Chilled desserts	9,923	10,327	10,771	11,195	11,583	0.5	3.9
Fromage frais	6,933	7,079	7,238	7,397	7,554	0.3	2.2
Dried food	149,066	157,929	166,595	174,094	182,097	7.6	5.1
Rice	95,972	101,313	106,350	110,670	115,335	4.8	4.7
Dried pasta/noodles	43,336	46,107	49,086	51,762	54,586	2.3	5.9
Dessert mixes	4,674	5,020	5,356	5,648	5,932	0.2	6.1
Dried ready meals	5,084	5,488	5,803	6,015	6,244	0.3	5.3
Confectionery	142,469	146,861	151,307	155,356	159,593	6.7	2.9
Chocolate	75,721	78,013	80,452	82,702	85,132	3.6	3.0

품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중	연평균 성장률 ('09~'13)
Sugar confectionery	43,468	44,603	45,832	46,840	47,859	2.0	2.4
Gum	16,751	17,343	17,735	18,155	18,583	0.8	2.6
Cereal bars	6,528	6,903	7,288	7,658	8,019	0.3	5.3
<b>Frozen food</b>	<b>106,310</b>	<b>109,691</b>	<b>113,160</b>	<b>116,747</b>	<b>119,896</b>	<b>5.0</b>	<b>3.1</b>
Frozen ready meals	26,067	26,765	27,447	28,161	28,776	1.2	2.5
Frozen fish/seafood	17,592	18,255	18,908	19,539	20,217	0.8	3.5
Frozen meat products	16,763	17,257	17,773	18,375	18,630	0.8	2.7
Frozen pizza	11,847	12,385	12,934	13,475	14,003	0.6	4.3
Frozen vegetables	12,553	12,942	13,335	13,771	14,204	0.6	3.1
Frozen potato products	7,945	8,262	8,584	8,878	9,171	0.4	3.7
Frozen bakery products	7,756	7,906	8,124	8,344	8,543	0.4	2.4
Frozen desserts	3,895	3,947	4,003	4,087	4,162	0.2	1.7
Frozen fruit	1,894	1,975	2,053	2,119	2,189	0.1	3.7
<b>Savory Snacks</b>	<b>73,305</b>	<b>77,364</b>	<b>81,416</b>	<b>85,257</b>	<b>89,511</b>	<b>3.8</b>	<b>5.1</b>
Processed snacks	25,638	26,842	28,156	29,281	30,521	1.3	4.5
Potato chips	21,572	22,635	23,784	24,915	26,131	1.1	4.9
Nuts & seeds	13,207	13,946	14,563	15,304	16,041	0.7	5.0
Other savory snacks	7,989	8,570	9,126	9,662	10,301	0.4	6.6
Popcorn	4,900	5,371	5,787	6,096	6,517	0.3	7.4
<b>Sauces, dressings &amp; condiments</b>	<b>86,693</b>	<b>89,735</b>	<b>92,648</b>	<b>95,275</b>	<b>98,149</b>	<b>4.1</b>	<b>3.2</b>
Wet cooking sauces	16,385	17,011	17,620	18,126	18,725	0.8	3.4
Dry cooking sauces	14,740	15,374	16,061	16,702	17,368	0.7	4.2
Dressings	15,719	16,133	16,518	16,862	17,231	0.7	2.3
Table sauces	11,634	12,067	12,471	12,821	13,226	0.6	3.3
Seasonings	12,191	12,613	12,933	13,257	13,597	0.6	2.8
Condiment sauces	6,540	6,780	7,027	7,246	7,491	0.3	3.5
Pickled products	6,060	6,253	6,427	6,588	6,755	0.3	2.8
Dips	3,424	3,505	3,589	3,673	3,756	0.2	2.3
<b>Oils &amp; fats</b>	<b>55,819</b>	<b>59,233</b>	<b>63,100</b>	<b>66,708</b>	<b>70,978</b>	<b>3.0</b>	<b>6.2</b>
Oils	51,743	54,952	58,624	62,021	66,041	2.8	6.3
Solid fats	4,077	4,281	4,476	4,686	4,936	0.2	4.9
<b>Canned food</b>	<b>63,424</b>	<b>65,527</b>	<b>67,654</b>	<b>69,492</b>	<b>71,400</b>	<b>3.0</b>	<b>3.0</b>
Canned fish/seafood	22,557	23,273	24,027	24,652	25,316	1.1	2.9

품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중	연평균 성장률 ('09~'13)
Canned vegetables	16,392	17,226	18,015	18,705	19,364	0.8	4.3
Canned meat products	9,553	9,798	10,123	10,382	10,683	0.4	2.8
Canned fruit	5,952	6,117	6,261	6,414	6,557	0.3	2.5
Canned ready meals	5,476	5,494	5,527	5,571	5,622	0.2	0.7
Canned desserts	2,087	2,203	2,291	2,363	2,456	0.1	4.2
Canned pasta & noodles	1,407	1,416	1,410	1,405	1,402	0.1	-0.1
<b>Ice cream</b>	<b>51,348</b>	<b>53,617</b>	<b>55,856</b>	<b>58,206</b>	<b>60,581</b>	<b>2.5</b>	<b>4.2</b>
Impulse ice cream	19,403	20,478	21,534	22,622	23,784	1.0	5.2
Take-home ice cream	19,926	20,653	21,353	22,093	22,801	1.0	3.4
Artisanal ice cream	10,017	10,380	10,771	11,217	11,627	0.5	3.8
Frozen yogurt	2,002	2,106	2,198	2,273	2,369	0.1	4.3
<b>Spreads</b>	<b>18,747</b>	<b>19,469</b>	<b>20,221</b>	<b>20,847</b>	<b>21,511</b>	<b>0.9</b>	<b>3.5</b>
Honey	4,985	5,207	5,450	5,665	5,908	0.2	4.3
Jams & preserves	5,516	5,648	5,781	5,912	6,034	0.3	2.3
Savory spreads	3,598	3,699	3,816	3,919	4,034	0.2	2.9
Nut-based spreads	2,396	2,599	2,788	2,897	3,012	0.1	5.9
Chocolate spreads	2,251	2,317	2,387	2,454	2,524	0.1	2.9
<b>Soup</b>	<b>16,015</b>	<b>16,843</b>	<b>17,562</b>	<b>18,183</b>	<b>18,863</b>	<b>0.8</b>	<b>4.2</b>
Canned soup	7,392	7,792	8,119	8,383	8,682	0.4	4.1
Dried soup	6,443	6,760	7,063	7,347	7,653	0.3	4.4
Chilled Soup	1,161	1,232	1,285	1,323	1,363	0.1	4.1
Frozen soup	564	585	603	623	641	0.0	3.2
UHT Soup	455	474	492	507	525	0.0	3.6
<b>Baby food</b>	<b>9,810</b>	<b>10,278</b>	<b>10,770</b>	<b>11,313</b>	<b>11,781</b>	<b>0.5</b>	<b>4.7</b>
Baby Cereals	4,068	4,369	4,680	5,030	5,346	0.2	7.1
Bottled Baby Food	4,235	4,344	4,461	4,579	4,672	0.2	2.5
Baby Snacks	736	766	799	836	867	0.0	4.2
Other Baby Foods	459	465	474	483	489	0.0	1.6
Canned Baby Food	314	335	356	386	407	0.0	6.7

주 : (가공)식품(Food) 기준이며, Datamonitor의 품목군은 식품생산실적의 품목군과 다름  
 \* 건강기능식품 제외

자료 : Datamonitor, Interactive Consumer Database, 2014.10

가공식품의 세계시장 규모를 세부 품목별로 보면<sup>23)</sup>, Chilled food 중 Chilled meat products가 3,810억달러로 전체 가공식품의 16.0%를 차지하여, 다음으로 Bakery & Cereals 중 Bread & rolls가 1,773억달러(7.4%), Chilled food 중 Deli food가 1,673억달러(7.0%)등의 순으로 시장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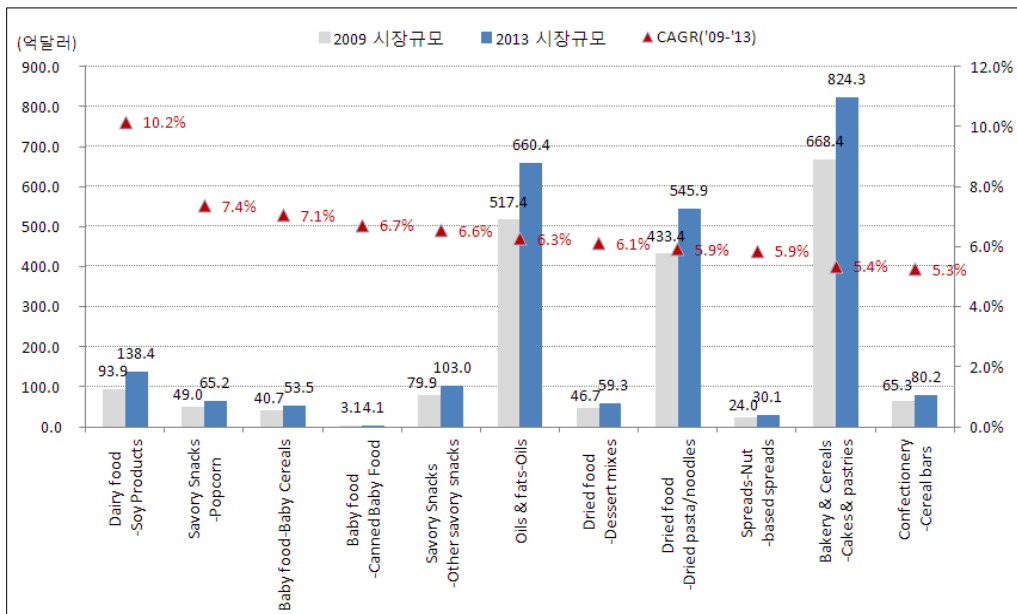


그림 2-2 가공식품 연평균성장률 상위 10대 세부 품목

주 : (가공)식품(Food) 기준이며, Datamonitor의 품목군은 식품생산실적의 품목군과 다름  
\* 건강기능식품 제외

자료 : Datamonitor, Interactive Consumer Database, 2014.10

또한 가공식품(Food) 중 최근 5년간 연평균성장률이 높은 세부 품목으로는 Dairy food 중 Soy Products가 연평균 10.4%로 가장 높은 성장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Savory Snacks 중 Popcorn 7.4%, Baby food-Baby Cereals 중 Baby Cereals 7.1% 등의 순으로 성장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3) Datamonitor는 Industry>Market>Category>Segment>Subsegment 로 산업을 분류하며, 여기서는 세부 품목은 Category 단계에 해당함

표 2-5 비알콜음료 세부 품목별 세계 시장규모

(단위 : 백만달러, %)

품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중	연평균 성장률 (09~13)
Soft drinks	525,138	545,577	568,942	591,769	615,473	84.1	4.0
Carbonates	194,991	196,949	200,299	203,923	207,733	28.4	1.6
Bottled water	113,885	121,526	129,260	136,713	143,705	19.6	6.0
Juices	97,200	100,022	102,879	106,102	109,721	15.0	3.1
Functional drinks	48,977	52,717	57,138	61,729	65,831	9.0	7.7
RTD tea & coffee	50,835	54,286	58,558	61,784	66,305	9.1	6.9
Concentrates	16,964	17,584	18,217	18,828	19,355	2.6	3.4
Smoothies	2,286	2,494	2,592	2,688	2,823	0.4	5.4
Hot drinks	80,563	83,820	87,478	91,339	95,288	13.0	4.3
Coffee	46,560	48,284	50,325	52,519	54,735	7.5	4.1
Tea	27,896	29,119	30,396	31,686	33,009	4.5	4.3
Other hot drinks	6,108	6,417	6,756	7,135	7,544	1.0	5.4
Baby drinks	18,014	18,851	19,825	21,471	21,430	2.9	4.4
Infant Formula	17,537	18,379	19,349	20,992	20,952	2.9	4.5
Baby Juice	477	473	476	479	478	0.1	0.1

주 : 비알콜음료(Beverages - Non-Alcoholic) 기준이며, Datamonitor의 품목군은 식품생산실적의 품목군과 다름  
\* 건강기능식품 제외

자료 : Datamonitor, Interactive Consumer Database, 2014.10

비알콜음료 세부 품목 중에서는<sup>24)</sup>, 청량음료(Soft drinks) 중 탄산음료(Carbonates)가 2,077억달러로 전체 비알콜음료의 2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생수(Bottled water) 1,437억달러(19.6%), 주스(Juices) 1,097억달러(15.0%) 등의 순으로 시장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알콜음료 중 최근 5년간 연평균성장률이 큰 세부 품목으로는 기능성 음료(Functional drinks) 7.7%, RTD tea & coffee 6.9%, 생수(Bottled water) 6.0% 순 이었다.

24) Datamonitor는 Industry>Market>Category>Segment>Subsegment 로 산업을 분류하며, 여기서는 세부 품목은 Category 단계에 해당함

### 1.3 기업별 시장규모

2013년 시장가치(Market Value) 기준 세계 식품기업 순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스위스의 유가공 전문기업인 네슬레(Nestlé)가 619 억달러로 1위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Mondelez International 2위, Unilever 3위, Kraft Foods Group 4위, Mars 가 5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식품기업 가운데는 CJ제일제당이 101위, 동원 F&B(Dongwon F&B) 109위, 농심(Nong Shim Holdings) 120위, 크라운 제과(Crown Confectionery) 151위로 시장 가치 기준 식품 200대 기업에 포함되었다.

표 2-6 세계 주요 식품기업 시장가치 순위<sup>25)</sup>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기업명	국가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성장률 (09~13)	
								비중	
1	Nestle S.A.	스위스	50,668	54,909	57,303	59,652	61,863	2.6	5.1
2	Mondelez International Inc.	미국	-	-	405	50,982	52,497	2.2	-
3	Unilever	영국·네덜란드	31,945	33,105	34,555	35,990	36,906	1.6	3.7
4	Kraft Foods Group Inc.	미국	-	-	-	30,700	32,032	1.3	-
5	Mars, Inc.	미국	28,087	29,111	30,102	30,969	31,892	1.3	3.2
6	JBS S.A.	브라질	21,618	24,277	27,063	28,109	29,185	1.2	7.8
7	PepsiCo, Inc.	미국	20,978	21,940	24,669	25,779	27,048	1.1	6.6
8	Brasil Foods S.A.	브라질	20,144	21,288	22,548	23,643	24,799	1.0	5.3
9	Tyson Foods, Inc.	미국	22,367	22,922	23,546	24,160	24,731	1.0	2.5
10	Groupe Danone	프랑스	19,717	20,006	20,828	21,703	22,422	0.9	3.3
11	General Mills, Inc.	미국	13,466	14,084	16,381	17,335	17,945	0.8	7.4
12	Kellogg Company	미국	13,887	14,317	14,779	16,881	17,435	0.7	5.9
13	Grupo Bimbo S.A. de C.V.	멕시코	11,109	11,715	14,304	14,978	15,742	0.7	9.1

25) 전 세계 상장 기업 중 3,788개를 대상으로 함

순위	기업명	국가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성장률 (09~13)	
								비중	
14	Groupe Lactalis	프랑스	5,304	5,998	13,993	14,424	14,842	0.6	29.3
15	The Hershey Company	미국	10,779	11,178	11,468	11,728	12,040	0.5	2.8
16	ConAgra Foods, Inc.	미국	9,470	9,931	10,300	10,767	11,543	0.5	5.1
17	Campbell Soup Company	미국	9,080	9,370	9,661	9,866	10,142	0.4	2.8
18	Ebro Foods S.A	스페인	7,826	8,280	8,900	9,351	9,859	0.4	5.9
19	Shuanghai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	중국	-	-	-	-	9,515	0.4	-
20	Nippon Meat Packers, Inc.	일본	8,781	8,948	9,139	9,269	9,413	0.4	1.8%
상위 20개 기업 합계			305,226	321,377	349,945	446,286	471,849	19.8	115%
전체 합계			2075329	2151878	2229399	230471	2379081	1000	3.5%

주 : 식품 = (가공)식품(Food)+비알콜음료(Beverages - Non-Alcoholic)

\* 건강기능식품 제외

자료 : Datamonitor, Interactive Consumer Database, 2014.10

## 2.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2012년 세계 건강기능식품(Global Nutrition Industry) 시장규모는 약 3,464억달러(전년 대비 7.1% 성장)이며, 그 중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것으로 분류되는 Supplements 시장규모는 961억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sup>26)</sup>.

표 2-7 품목별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단위: 억달러,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e)	2014(e)	2015(e)	2020(e)
Supplements	매출액	803	846	902	961	1,034	1,100	1,179	1,677
	성장률	4.8	5.4	6.5	7.0	7.6	6.4	7.1	7.3
Natural/Organic Food	매출액	782	838	915	1,010	1,116	1,231	1,357	2,255
	성장률	3.8	702.0	9.2	10.3	10.5	10.4	10.2	9.8
N & OPC & Household Product	매출액	285	310	339	374	411	452	496	767
	성장률	5.2	8.7	9.4	10.3	9.9	9.8	9.7	8.7
Functional Food	매출액	964	1,009	1,061	1,119	1,180	1,247	1,315	1,696
	성장률	2.3	4.7	5.1	5.5	5.5	5.7	5.5	5.2
Total	매출액	2,834	3,004	3,217	3,464	3,741	4,029	4,347	6,394
	성장률	3.7	6.0	7.1	7.7	8.0	7.7	7.9	7.8

자료 : 2014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14.11

세계 건강기능식품(Global Nutrition Industry)의 품목은 Supplements, Natural/Organic Food, N & OPC & Household Product, Functional Food로 구분되는데<sup>27)</sup>,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가별 용어와 범위는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그 중 Supplements를 국내 건강기능식품과 대응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26) 「2014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14.11)를 참고하였으며, 해당 보고서가 근거한 원자료의 출처는 "NBJ's Global Supplement & Nutrition Industry Report 2014"(2014.2)

27) \* Supplements : 비타민, 미네랄, 허브, 식사대용식품, 스포츠·영양강화 식품, 스페셜티(글루코사민, DHEA, Coq10, 아미노산, 프로바이오틱스, 콘드로이친 등)

\* Natural/Organic Food : 자연 생산된 농수산물과 유기농 식품

\* N & OPC & Household Product(Natural & Organic Personal Care & Household Product) : 천연 및 유기농 헬스 & 뷰티 제품

\* Functional Food : 특정 성분을 강화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기능성을 함유한 식품

그에 따라 Supplements를 기준으로 한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약 961억달러 규모로 2011년 902억달러 대비 6.5% 가량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 4년간 연평균성장률은 6.2%로, 2020년에는 약 1,677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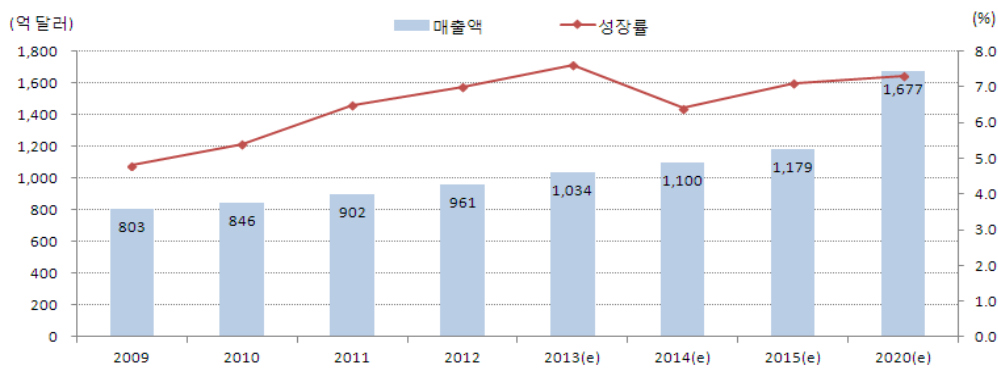


그림 2-3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주 : Supplements 기준

자료 : 2014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14.11

한편 국가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2012년 미국이 325억달러로 전체 시장의 33.8%를 차지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에 이어 유럽 159억달러(16.5%), 중국 119억달러(12.4%), 일본 106억달러(11.0%)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미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에서는 세계 6위로 나타났으나, 전년대비 성장률이 12.9%로 매우 높은 성장을 보였고, 그 외 중국(전년대비 11.7% 성장), 동유럽/러시아(전년대비 10.0% 성장), 중동(전년대비 9.0% 성장) 등의 순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일본(0.4%), 서유럽(1.9%)은 매우 저조한 성장을 보여 향후 시장점유율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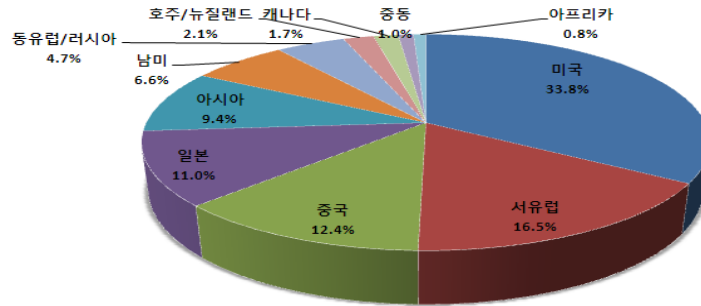


그림 2-4 국가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2012)

주 : Supplements 기준

자료 : 2014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14.11

일본의 경우 과거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규모를 보였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중국 시장이 일본의 시장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국시장의 이러한 성장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up>28)</sup>.

표 2-8 국가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2012)

(단위: 억달러, %)

구분	미국	서유럽	중국	일본	아시아	남미	동유럽/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중동	아프리카	총 합계
매출액	325	159	119	106	90	63	45	20	16	10	8	961
비중	33.8	16.5	12.4	11.0	9.4	6.6	4.7	2.1	1.7	1.0	0.8	100.0
전년대비 성장률	7.5	1.9	11.7	0.4	9.5	12.9	10.0	4.9	4.7	9.6	9.3	6.8

주 : Supplements 기준

자료 : 2014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14.11

28) 2014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14.11

## 제3장 국내 식품산업 동향

### 1. 시장규모 및 업체 현황

#### 1.1 시장규모

표 3-1 식품 시장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성장률 (‘09~’13)
생산	40,408,833	34,548,230	40,318,186	43,478,331	48,869,700	4.9%
수출	2,589,076	2,966,831	3,571,062	3,771,553	4,112,812	12.3%
수입	6,719,512	7,425,710	8,970,489	10,052,019	9,933,299	10.3%
무역수지	△4,130,437	△4,458,879	△5,399,428	△6,280,467	△5,820,486	-
시장규모	44,539,270	39,007,109	45,717,614	49,758,798	54,690,186	5.3%

주 : 1) 시장규모는 생산 - 수출 + 수입

2) 무역수지는 수출 - 수입, △는 적자를 나타냄

3) 수출입액은 한국은행 원/달러 연평균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4) 식품 = (가공)식품 + 건강기능식품 + 식품첨가물 + 기구·용기·포장

\*식품 생산·수출은 2010년부터 축산물가공품 제외, 2013년부터 주류 포함

자료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 연도

2)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각 연도

3)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13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분석결과 발표」, 2014. 8. 6

본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3년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및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식품제조산업의 업체현황 및 생산·출하실적 등을 분석하였다.

2013년 국내 식품시장 규모는 54조 6,902억원으로, 이는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나, 2013년부터 생산실적에 새롭게 포함된 주류를 제외하면 총 생산액은 49조 3,662억원으로 전년대비 0.8%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1.2 업체 현황

### 1) 업체 수 현황

2013년 생산실적을 보고한 국내 식품 제조·가공업 업체 수는 총 26,741개로 2013년 (25,474개)에 비해 약 3.2% 증가하였다<sup>29)</sup>.

표 3-2 생산실적 보고업체 수 현황

(단위 : 개,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성장률	
						전년대비	연평균 성장률 ('09~'13)
식품등제조가공업	20,564	20,717	23,774	25,052	26,292	4.9	0.1
건강기능식품	372	343	413	422	449	6.4	0.0
총 보고업체 수	20,936	21,060	24,187	25,474	26,741	5.0	0.1

주 : 2010년부터 축산물가공업 제조업 제외, 2013년부터 주류 제조업 포함

자료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 연도

2)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13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분석결과 발표」, 2014. 8. 6

또한 2013년 품목별 업체 수는 36,402개로 2012년 34,257개와 비교하여 약 6.3% 증가하였고, 2013년부터 포함된 주류 제조업 1,096개를 제외하면 품목별 업체 수는

29) 2009년 생산실적 보고방식이 서면보고에서 전산보고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업체들의 생산실적 보고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0년 이후 보고방식 변경의 효과가 사라져 보고 업체 수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였다가 2011년 다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1년 생산실적 보고 업체를 모집단으로 미리 선정·관리하여 업체들의 생산실적 자료입력 일정을 관리하였기 때문

35,306개로 전년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규격외 일반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 수가 4,956개소(13.6%)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식품류 3,847개소(10.6%), 조미식품 2,997개소(8.2%), 빵 또는 떡류 2,701개소(7.4%) 순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를 기록하였다.

전년대비 보고업체수 성장률은 당시럽류 생산업체수가 전년대비 63.6%로 크게 증가했고, 당시럽류(63.6%), 커피(56.1%), 엿류(28.5%) 순으로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보고 업체 수의 연평균성장률이 가장 큰 품목군은 올리고당류(27.8%), 식품첨가물(19.0%), 엿류(16.4%), 당시럽류(15.8%), 커피(15.7%) 등으로 나타나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경향이 확대되며 설탕의 대체 품목 생산업체의 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3-3 품목군별 업체 수 현황

(단위 : 개, %)

순위	품목군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성장률 ('09~'13)
							비중	전년대비	
1	규격외일반가공품	3,700	3,920	3,922	4,608	4,758	4,956	13.6	4.2
2	기타식품류	2,755	2,835	2,992	3,530	3,753	3,849	10.6	2.6
3	조미식품	2,253	2,464	2,464	2,755	2,900	2,997	8.2	3.3
4	빵 또는 떡류	1,801	2,067	2,170	2,535	2,641	2,701	7.4	2.3
5	다류	1,532	1,815	1,976	2,325	2,593	2,775	7.6	7.0
6	음료류	1,329	1,525	1,726	2,027	1,994	1,991	5.5	-0.2
7	과자류	1,479	1,596	1,615	1,869	1,990	1,998	5.5	0.4
8	기구 및 용기포장	1,460	1,515	1,496	1,760	1,798	1,916	5.3	6.6
9	장류	1,169	1,288	1,325	1,548	1,619	1,644	4.5	1.5
10	절임식품	907	1,050	1,140	1,394	1,487	1,564	4.3	5.2
11	커피	562	663	670	702	761	1,188	3.3	56.1
12	두부류 또는 목류	948	980	921	998	988	980	2.7	-0.8
13	김치류	790	849	839	931	930	901	2.5	-3.1
14	식품첨가물	266	373	478	869	894	747	2.1	-16.4
15	식용유지류	582	608	558	670	673	674	1.9	0.1
16	면류	545	617	618	693	717	665	1.8	-7.3
17	젓갈류	656	686	651	653	669	659	1.8	-1.5
18	식육 또는 알가공품	613	630	624	670	677	558	1.5	-17.6

순위	품목군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성장률 ('09~'13)
							비중	전년대비	
19	조림식품	191	251	276	360	377	388	1.1	2.9
20	건포류	311	341	295	323	333	330	0.9	-0.9
21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241	245	244	239	262	284	0.8	8.4
22	어육가공품	163	186	206	262	264	267	0.7	1.1
23	엿류	98	130	143	159	186	239	0.7	28.5
24	잼류	139	159	159	167	220	203	0.6	-7.7
25	드레싱	84	95	102	114	136	142	0.4	4.4
26	특수용도식품	69	69	74	94	101	116	0.3	14.9
27	용기류	30	64	29	35	35	42	0.1	20.0
28	포도당	9	14	13	22	21	17	0.0	-19.0
29	설탕	10	15	14	16	17	19	0.1	11.8
30	당시럽류	9	10	9	12	11	18	0.0	63.6
31	올리고당류	6	6	10	14	16	16	0.0	0.0
32	과당	11	11	12	14	13	11	0.0	-15.4
시군구 합계		27,077	27,771	32,368	33,834	34,855	95.8	3.0	6.5
33	건강기능식품	372	343	424	422	449	1.2	6.4	4.8
34	주류	n.a.	n.a.	n.a.	n.a.	1,096	3.0	-	-
35	식품조사처리	3	2	2	1	2	0.0	1000	-9.6
식약처 합계		375	345	426	423	1547	4.2	2657	42.5
총계		27,452	28,116	32,794	34,257	36,402	100.0	6.3	7.3

주 : 1. 업체당 1개 이상의 품목을 생산할 경우 중복하여 계상되며 '전체 업체 수'와 일치하지 않음  
2. 축산물가공품 제외

자료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 연도

2)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13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분석결과 발표』, 2014. 8. 6

## 2) 종업원 수 현황

2013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의 전체 종업원 수는 275,782명<sup>30)</sup>으로 나타나 업체당 평균 종업원 수는 10.5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3년 종업원 수에는 주류가 새롭게 포함되고, 건강기능식품이 제외된 수치로 전년과 비교는 어려우나, 참고로 2012년의 경우 전체 종업원 수는 293,484명, 업체당 평균 종업원 수는 11.5명이었다.

30) 건강기능식품 제외

## 2. 식품 생산실적 현황

### 2.1 생산 및 매출현황

#### 1) 생산현황

2013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액은 473,878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식품 산업 생산액은 3.32%, 전체 제조업 생산액 대비 11.63%를 차지하고 있다.

표 3-4 국내총생산(GDP) 대비 식품산업 생산액 현황

(단위: 십억원, %)

연도	제조업 GDP	국내총생산(GDP)	식품산업 총 생산액	비율 (%)	
				제조업 GDP 대비	GDP 대비
2001	169,740	688,185	27,685	16.31	4.02
2002	184,578	761,939	35,388	19.17	4.64
2003	193,549	810,915	21,046	10.87	2.60
2004	225,328	876,033	30,045	13.33	3.43
2005	234,697	919,797	29,579	12.60	3.22
2006	242,292	966,055	32,695	13.49	3.38
2007	265,627	1,043,258	33,148	12.48	3.18
2008	284,940	1,104,492	36,650	12.86	3.32
2009	300,037	1,151,708	40,408	13.47	3.51
2010	351,771	1,265,308	34,548	9.82	2.73
2011	379,521	1,332,681	40,318	10.62	3.03
2012	388,010	1,377,457	43,478	11.21	3.16
2013	405,527	1,428,295	47,388	11.69	3.32

주: 1) 국내총생산(명목, 시장가격) 및 제조업GDP(명목), 한국은행, 2014. 9

2) 2001~2002년, 2004~2009년 축산물가공품 포함, 2013년부터 주류 포함

\* 건강기능식품이 제외되어 <표 3-1>과 총계가 상이함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년도

## 2) 매출현황

2013년 식품 및 식품첨가물 매출액은 540,282억원(생산액 473,878억원 대비 114.0%)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생산액과 매출액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 매출액은 2005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0년 일시적 후퇴기를 겪은 후, 지난 3년간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은 2008~2009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난 이듬해로써, 우리나라 식품산업이 이후 경기위축 여파로부터 벗어나는데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사료된다.

표 3-5 생산액 대비 매출액 추이(2005~2013)

(단위: 천원, %)

연도	생산액	매출액	국내판매액		수출액	
				비중		비중
2005	29,579,376,574	33,335,150,360	31,066,849,937	93.2	2,268,300,423	6.8
2006	32,694,772,305	35,699,307,123	33,699,147,778	94.4	2,000,159,345	5.6
2007	33,147,999,104	37,365,857,444	35,463,084,845	94.9	1,902,772,599	5.1
2008	36,649,627,163	39,298,783,847	36,740,932,012	93.5	2,557,851,835	6.5
2009	40,408,833,378	44,440,638,918	41,851,563,275	94.2	2,589,075,643	5.8
2010	34,548,229,978	38,790,939,006	35,824,107,736	92.4	2,966,831,270	7.6
2011	40,318,186,189	44,448,301,187	40,877,239,579	92.0	3,571,061,608	8.0
2012	43,478,331,108	47,327,653,596	43,556,101,062	92.0	3,771,552,534	8.0
2013	47,387,774,991	54,028,196,292	49,991,07,845	92.5	4,037,188,447	7.5

주 : '매출액 = 국내판매액 + 수출액' 이며, 건강기능식품이 제외되어 <표 3-1>과 총계가 상이함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년도

한편, 2013년 전체 매출액 중 출하액 비중은 92.5%, 수출액 비중이 7.5%로 나타나 내수 출하가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식품산업의 해외 진출이 보다 활발히 추진될 필요성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 2.2 업종별 생산실적 현황

### 1) 생산현황

2013년 업종별 생산액은 건강기능식품이 40.8%, 식품첨가물이 14.5%의 높은 성장을 보였으며, 기구 및 용기·포장(△1.1%)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여 그간의 고성장이 꺾이고 (-)성장을 나타내었다.

한편 식품 생산액은 2013년 새롭게 포함된 주류 품목의 영향을 배제할 경우 전년대비 1.3% 성장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표 3-6 업종별 생산액 현황(2011~2013)

(단위 :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생산액	성장률	생산액	성장률	생산액	성장률	비중
식품	327,278	16.4	350,195	7.0	398,504	13.8	81.5
기구 및 용기·포장	52,127	19.3	60,293	2.5	59,609	-1.1	12.2
식품첨가물	13,781	7.8	13,770	0.0	15,764	14.5	3.2
건강기능식품	9,995	27.1	10,525	0.2	14,820	40.8	3.0
합계	403,182	16.7	434,783	9.7	488,697	9.0	100.0

주 : 식품= 식품+식품조사처리, 기구·용기·포장지=기구·용기·포장지+용기류

자료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 연도

2)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13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분석결과 발표』, 2014. 8. 6

2013년 전체 생산규모는 식품이 가장 높은 39조 8,504억원으로 81.6%의 생산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 기구·용기·포장지(5조 9,609억원) 12.2%, 식품첨가물(1조 5,764억원) 3.2%, 건강기능식품(1조 4,820억원) 3.0%의 비중을 각각 차지하였다.

### 2) 매출현황

2013년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국내판매액은 49조 9910억원, 전체 매출액은 54조 28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대비 14.2% 증가한 수치이나 2013년 추가된 주류를 제외하면 전년대비 약 0.7% 가량 증가한 수치로, 매출 성장이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출액 성장률 최대치를 기록한 업종은 다음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식품첨가물 (19.1%)로 2013년 1조6,82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특히 내수 출하액의 전년대비 성장률은 14.3%, 수출액 성장률은 40.3%로 나타났다.

2013년 식품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21.1% 성장하여 46조 84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 (85.3%)을 차지하였으나, 주류를 제외할 경우 전년대비 약 4.3% 성장한 것으로 파악 된다. 식품첨가물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9.1% 증가하여 1조 6,827억원, 기구 및 용기·포장은 전년대비 2.7% 감소한 6조 2,613억원을 기록했다.

표 3-7 업종별 매출액 현황(2011~2013)

(단위 : 억원, 백만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매출액	매출액	매출액	국내 판매액	성장률	수출액	성장률
식품	361,819	380,677	460,842	431,981	22.3	2,636	8.3
기구및용기·포장	55,939	64,378	62,613	55,225	-4.3	675	13.5
식품첨가물	13,043	14,130	16,827	12,705	14.3	376	40.3
건강기능식품	n.a.	n.a.	n.a.	n.a.	n.a.	n.a.	n.a.
합계	444,483	473,277	540,282	499,911	14.8	3,687	10.2

주 : 1) 식품= 식품+식품조사처리, 기구·용기·포장지 = 기구·용기·포장지+용기류

2) 매출액 및 출하액은 억원 단위이며, 수출액은 백만 달러 단위임

자료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 연도

2)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13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분석결과 발표」, 2014. 8. 6

한편 2013년에는 식품첨가물이 19.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년에 비해(2012년 전년대비 0.2% 성장) 큰 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가공식품 제조회사들의 식품첨가물 수요 급증과 관련한 것으로 사료 된다<sup>31)</sup>. 최근 세계 식품시장에서는 식품기업 대신 전문적으로 맛을 연구·개발해주는 향미전문개발업체(flavor house)까지 등장할 만큼 식품첨가물과 관련한 향미개발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국내 식품업계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된다.

31) 식품첨가물은 식품회사들의 폭발적 수요에 힘입어 2014년 미국의 향미개발업체 규모(매출기준)는 40억달러(약 4조3400억원)에 도달할 전망. 컨설팅업체 레핑웰앤어소시에이즈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03년 25억달러(약 2조7000억원)에서 11년 간 60% 불어난 것(헤럴드경제, 2014.11)

## 2.3 품목별 생산실적 현황

### 1) 생산현황

2013년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품목별 생산액을 살펴보면, 기구·용기·포장지가 5조 9,36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12.1%)을 차지했고, 기타식품류 9.7%(4조 7,492억원),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7.9%(3조 8,727억원)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품목군별 전년대비 생산액 성장률은 용기류 117.7%, 건강기능식품 40.8%, 식품첨가물 14.5%, 절임식품 9.5%로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에 반해 당시럽류(△30.8%), 설탕(△19.6%), 식육 또는 알가공품(△19.5%), 음료류(△15.3%)은 생산액이 감소하였다.

특히, 음료류의 경우 2013년 15.3% 감소하여 전년의 9.7% 성장에서 급격한 성장률 하락을 나타냈으며, 커피가 전년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커피전문점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원두커피로의 대체와 함께 인스턴트 커피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재고 판매로 인해 생산액 증가가 정체된 원인으로 판단된다(53.0%(‘10년)→19.4%(‘11년)→5.35(‘12년)→△0.2(‘13년)). 반면 다류의 경우 전년대비 4.3% 성장해 2012년 성장률 1.5%를 상회하였다.

2013년 생산액 상위 10대 품목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4%로 전년의 73.7%에 비해 8.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식품 품목군별 생산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2013		
	생산액	점유율	생산액	점유율	성장률
기구및용기포장	6,018,243	13.8	5,936,764	12.1	-1.4
기타식품류	4,517,710	10.4	4,749,160	9.7	5.1
규격외일반가공식품	3,690,850	8.5	3,872,723	7.9	4.9
과자류	3,029,200	7.0	3,162,089	6.5	4.4
음료류	3,547,664	8.2	3,006,052	6.2	-15.3
빵또는떡류	2,711,799	6.2	2,911,484	6.0	7.4
조미식품	2,524,926	5.8	2,576,470	5.3	2.0
면류	2,566,611	5.9	2,477,947	5.1	-3.5

구분	2012		2013		
	생산액	점유율	생산액	점유율	성장률
커피	1,658,265	3.8	1,654,652	3.4	-0.2
식용유지류	1,766,778	4.1	1,633,822	3.3	-7.5
식품첨가물	1,376,955	3.2	1,576,392	3.2	14.5
코코야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1,254,194	2.9	1,287,914	2.6	2.7
김치류	954,585	2.2	984,839	2.0	3.2
설탕	1,139,286	2.6	915,455	1.9	-19.6
다류	755,315	1.7	787,748	1.6	4.3
장류	888,524	2.0	783,681	1.6	-11.8
어육가공품	617,806	1.4	658,349	1.3	6.6
두부류또는묵류	601,088	1.4	623,266	1.3	3.7
절임식품	548,021	1.3	600,333	1.2	9.5
건포류	301,622	0.7	306,674	0.6	1.7
엿류	289,602	0.7	271,436	0.6	-6.3
젓갈류	254,700	0.6	244,412	0.5	-4.0
특수용도식품	246,971	0.6	240,475	0.5	-2.6
식육또는알가공품	297,642	0.7	239,639	0.5	-19.5
드레싱	230,717	0.5	239,464	0.5	3.8
과당	234,514	0.5	212,002	0.4	-9.6
조림식품	158,626	0.4	173,046	0.4	9.1
잼류	124,025	0.3	110,791	0.2	-10.7
올리고당류	47,571	0.1	49,782	0.1	4.6
포도당	59,364	0.1	48,604	0.1	-18.1
옹기류	11,097	0.0	24,158	0.0	117.7
당시럽류	1,281	0.0	886	0.0	-30.8
시군구 합계	42,425,550	97.6	42,360,509	86.7	-0.2
건강기능식품	1,052,526	2.4	1,482,000	3.0	40.8
주류	n.a.	n.a.	5,026,988	10.3	-
식품조사처리	255	0.0	278	0.0	9.0
식약처 합계	1,052,781	2.4	6,509,266	13.3	-
총계	43,478,331	100.0	48,869,775	100.0	-

주 :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하여 점유율을 재산출 함

자료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 연도

2)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13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분석결과 발표」, 2014. 8. 6

## 2) 매출현황

2013년 품목군별 매출액 1위는 6조 2,315억원을 기록한 기구 및 용기·포장지로 출하액과 수출액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 기타 식품류 5조 3,088억원, 규격외 일반 가공식품 4조 480억원으로 상위 3개 품목군을 차지했으며, 매출액 상위 10품목이 전체 매출액의 66.2%를 차지해 전년대비 6.6%p(2012년 72.8% 차지)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중 국내 출하액과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군구 합계 기준 국내 출하액 92.0%, 수출액 비중 8.0%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식용유지류(1.8%), 음료류(4.0%), 과자류(3.5%), 주류(4.0%) 등은 수출 비중이 시군구 합계(8.0%)의 수출액 비중보다 낮게 나타나 향후 우리나라 식품업계의 해외 시장 진출 촉진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에 반해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군으로는 식품조사처리(73.2%), 식품첨가물(24.5%), 설탕(19.7%), 규격외 일반 가공식품(13.1%), 기타식품류(12.2%) 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식품 품목군별 매출액(2013)

(단위 : 백만원, %)

구분	매출액	국내판매액		수출액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기구및용기포장	6,239,146	5,500,501	88.2	738,645	11.8
기타식품류	5,308,751	4,660,273	87.8	648,478	12.2
규격외일반가공식품	4,047,999	3,517,769	86.9	530,230	13.1
음료류	3,997,086	3,845,018	96.2	152,068	3.8
빵또는떡류	3,506,587	3,422,316	97.6	84,271	2.4
과자류	3,344,799	3,226,326	96.5	118,473	3.5
조미식품	2,980,827	2,897,620	97.2	83,207	2.8
면류	2,563,945	2,405,816	93.8	158,129	6.2
커피	2,119,304	1,992,123	94.0	127,181	6.0
식품첨가물	1,682,742	1,270,461	75.5	412,281	24.5

구분	매출액	국내판매액		수출액	
			비중		비중
식용유지류	1,617,449	1,589,096	98.2	28,353	1.8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1,234,613	1,157,874	93.8	76,739	6.2
설탕	1,223,548	982,710	80.3	240,838	19.7
김치류	1,094,100	1,014,427	92.7	79,673	7.3
장류	1,067,418	1,023,500	95.9	43,918	4.1
다류	874,676	783,283	89.6	91,393	10.4
어육가공품	774,752	747,202	96.4	27,550	3.6
두부류또는묵류	616,976	615,583	99.8	1,393	0.2
절임식품	550,325	543,930	98.8	6,395	1.2
특수용도식품	350,712	331,223	94.4	19,489	5.6
엿류	320,759	316,967	98.8	3,792	1.2
건포류	316,140	312,201	98.8	3,939	1.2
드레싱	284,764	263,125	92.4	21,639	7.6
과당	281,687	248,659	88.3	33,028	11.7
젓갈류	280,038	253,111	90.4	26,927	9.6
식육또는알가공품	274,701	274,690	99.9	10	0.1
조림식품	151,721	149,861	98.8	1,860	1.2
잼류	135,981	133,540	98.2	2,441	1.8
올리고당류	69,848	64,481	92.3	5,367	7.7
포도당	58,174	54,303	93.3	3,871	6.7
옹기류	22,111	21,973	99.4	138	0.6
당시럽류	1,078	1,078	100.0	-	0.0
시군구 합계	47,392,757	43,621,041	92.0	3,771,716	8.0
주류	6,635,183	6,369,898	96.0	265,285	4.0
식품조사처리	257	69	26.8	188	73.2
건강기능식품	n.a.	n.a.	n.a.	n.a.	n.a.
식약처 합계	6,635,440	6,369,967	96.0	265,473	4.0
총합계	54,028,196	49,991,008	92.5	4,037,189	7.5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2014

품목별 국내판매액 1위는 5조 7,575억원을 기록한 기구·용기·포장지(13.2%)였으며, 국내판매액 성장률 1위는 용기류로 전년대비 108.5% 증가하였다.

그 외에 커피가 전년대비 47.7%로 전년대비 높은 성장을 보였고, 드레싱(17.7%), 식품첨가물(14.3%), 올리고당류(13.3%), 빵 또는 떡류(13.3%)로 고성장을 보였는데, 특히 드레싱류의 높은 성장은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냉장드레싱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수혜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sup>32)</sup>.

또한 식육 또는 알가공품(△16.7%), 음료유(△10.1%), 엿류(△9.2%), 설탕(△7.0%), 식용유지류(△6.4%) 등은 전년대비 국내판매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코코아 가공품 또는 초콜릿류의 국내 판매액 역시 전년대비 3.7%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품목군별 국내판매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2013		
	국내판매액	점유율	국내판매액	점유율	성장률
기구및용기포장	5,757,481	13.2	5,500,501	11.0	-4.5
기타식품류	4,276,882	9.8	4,660,273	9.3	9.0
음료류	4,277,687	9.8	3,845,018	7.7	-10.1
규격외일반기공식품	3,353,429	7.7	3,517,769	7.0	4.9
빵또는떡류	3,020,278	6.9	3,422,316	6.8	13.3
과자류	3,073,678	7.1	3,226,326	6.5	5.0
조미식품	2,696,109	6.2	2,897,620	5.8	7.5
면류	2,285,370	5.2	2,405,816	4.8	5.3
커피	1,348,922	3.1	1,992,123	4.0	47.7
식용유지류	1,698,526	3.9	1,589,096	3.2	-6.4
식품첨가물	1,111,448	2.6	1,270,461	2.5	14.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1,202,461	2.8	1,157,874	2.3	-3.7
장류	1,035,663	2.4	1,023,500	2.0	-1.2

32)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냉장 드레싱 시장은 2014년 302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3% 성장한 것으로 분석

구분	2012		2013		
	국내판매액	점유율	국내판매액	점유율	성장률
김치류	942,239	2.2	1,014,427	2.0	7.7
설탕	1,056,843	2.4	982,710	2.0	-7.0
다류	806,473	1.9	783,283	1.6	-2.9
어육가공품	672,852	1.5	747,202	1.5	11.0
두부류또는묵류	617,297	1.4	615,583	1.2	-0.3
절임식품	496,936	1.1	543,930	1.1	9.5
특수용도식품	329,303	0.8	331,223	0.7	0.6
엿류	349,201	0.8	316,967	0.6	-9.2
건포류	323,329	0.7	312,201	0.6	-3.4
식육또는알가공품	329,663	0.8	274,691	0.5	-16.7
드레싱	223,592	0.5	263,125	0.5	17.7
젓갈류	250,719	0.6	253,111	0.5	1.0
과당	261,609	0.6	248,659	0.5	-5.0
조림식품	150,123	0.3	149,861	0.3	-0.2
잼류	139,804	0.3	133,540	0.3	-4.5
올리고당류	56,890	0.1	64,481	0.1	13.3
포도당	49,093	0.1	54,303	0.1	10.6
옹기류	10,539	0.0	21,973	0.0	108.5
당시럽류	955	0.0	1,078	0.0	12.9
시군구 합계	42,205,393	96.9	43,621,041	87.3	3.4
건강기능식품	1,350,708	3.1	n.a.	n.a.	-
주류	n.a.	n.a.	6,369,898	12.7	-
식품조사처리	0	0.0	69	0.0	-
식약처 합계	1,350,708	3.1	6,369,967	12.7	-
총계	43,556,101	100.0	49,991,008	100.0	-

자료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 연도

2)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13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분석결과 발표』, 2014. 8. 6

2013년 품목군별 수출액 1위는 기구·용기·포장지로 전년대비 13.5%증가한 675백만달러가 수출되어 2012년의 수출 성장률 4.3%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식품 포장지의 고급화로 인한 기구·용기·포장지 포함된 금속제의 수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또한 전년대비 수출액 성장률이 높은 품목군으로는 빵 또는 떡류(202.7%), 엿류(104.3), 과당(57.7%), 어육가공품(56.3%), 식품첨가물(40.7%) 등이 있었고, 용기류(113.5%)는 전년에 이어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2년 전체 수출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0.003%에 불과했다.

빵류의 경우 최근 미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2012년 이후 미국으로만 백만불 이상이 수출되었으며 수출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sup>33)</sup>, 국내 양산빵<sup>34)</sup> 생산액은 2008년 5400억원에서 2012년 6000억원 규모(빵류 생산액 1조 9854억원의 약 30%)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으며, 양산빵의 다양한 종류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수출액 상위 10개 품목군의 수출액 합계는 2,938백만달러로 총 수출액의 79.7%를 차지해 전년대비 5.3%p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해 상위 10개 품목군이 식품 및 식품 첨가물 총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 3-11 품목군별 수출액

(단위 : 달러, %)

구분	2012		2013		
	수출액	점유율	수출액	점유율	성장률
기구및용기포장	594,310,312	17.8	674,537,421	18.3	13.5
기타식품류	569,229,649	17.0	592,195,841	16.1	4.0
규격외일반가공식품	536,084,581	16.0	484,210,413	13.1	-9.7
식품첨가물	267,636,411	8.0	376,498,622	10.2	40.7
설탕	250,518,430	7.5	219,935,785	6.0	-12.2
면류	151,652,293	4.5	144,404,310	3.9	-4.8
음료류	138,530,210	4.1	138,869,618	3.8	0.2

33) 농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조사'

34) 양산빵: 공장에서 대량으로 제조되어 포장·출하된 뒤, 마트·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주로 판매 되는 빵

구분	2012		2013		
	수출액	점유율	수출액	점유율	성장률
커피	117,244,688	3.5	116,142,671	3.2	-0.9
과자류	129,667,967	3.9	108,190,817	2.9	-16.6
다류	77,245,423	2.3	83,460,956	2.3	8.0
빵또는떡류	25,427,575	0.8	76,956,563	2.1	202.7
조미식품	60,103,775	1.8	75,985,639	2.1	26.4
김치류	89,596,399	2.7	72,757,692	2.0	-18.8
코코아기공품류또는초콜릿류	66,641,705	2.0	70,078,752	1.9	5.2
장류	37,586,479	1.1	40,105,932	1.1	6.7
과당	19,122,812	0.6	30,161,743	0.8	57.7
식용유지류	36,203,108	1.1	25,892,267	0.7	-28.5
어육기공품	16,097,376	0.5	25,158,994	0.7	56.3
젓갈류	28,030,769	0.8	24,590,372	0.7	-12.3
드레싱	33,238,779	1.0	19,761,073	0.5	-40.5
특수용도식품	20,270,331	0.6	17,797,790	0.5	-12.2
절임식품	5,952,933	0.2	5,839,495	0.2	-1.9
올리고당류	5,606,469	0.2	4,900,715	0.1	-12.6
건포류	6,614,577	0.2	3,597,108	0.1	-45.6
포도당	3,993,054	0.1	3,535,367	0.1	-11.5
엿류	1,695,034	0.1	3,463,070	0.1	104.3
잼류	2,618,523	0.1	2,228,813	0.1	-14.9
조림식품	2,296,690	0.1	1,698,751	0.0	-26.0
두부류또는묵류	1,531,468	0.0	1,272,051	0.0	-16.9
옹기류	58,954	0.0	125,864	0.0	113.5
식육또는알기공품	25,724	0.0	9,166	0.0	-64.4
당시럽류	5,663	0.0	-	-	-
시군구 합계	3,294,838,161	98.4	3,444,363,671	93.4	4.5
건강기능식품	51,893,120	1.6	n.a.	n.a.	n.a.
주류	n.a.	n.a.	242,260,331	6.6	-
식품조사처리	202,655	0.0	171,407	0.0	-15.4
식약처 합계	52,095,775	1.6	242,431,738	6.6	365.4
총계	3,346,933,936	100.0	3,686,795,409	100.0	10.2

자료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 연도

2)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13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분석결과 발표」, 2014. 8.

2013년 수출액 상위 10개 세부 품목명을 살펴보면, 수출액 상위 10개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7%(전년대비 0.7%p증가)로 그 비중이 전체 수출액의 절반에 가까운 높은 비중을 보였다.

2013년에도 수출액 1위 품목은 전년과 동일하게 즉석섭취식품(도시락)이 차지했으며 전체 수출의 9.6%로 단일 품목으로 최대 비중을 나타냈다. 이는 항공사 기내식으로 판매되는 도시락이 수출액에 산정되는 원인에 기인한다.

또한 수출액 상위 품목 중 특히 눈에 띄는 품목으로는 유리, 도자기, 법랑(6.4%)이 지난해 2위를 차지한 백설탕(6.4%)를 제치고 2위에 올랐으며, 2013년 생산실적에 주류가 새롭게 포함되며 주류 수출액(3.9%)이 6위로 일본인 관광객들로부터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 조미김(2.9%) 보다 더 높은 수출액을 보였다.

아울러 지난해 높은 수출을 보였던 배추김치가 10위권에서 사라지고, 갈색설탕(6.0%)이 3위에 새롭게 등극하였고, 볶은 커피(2.7%)가 새롭게 10위권에 올랐다.

표 3-12 수출액 상위 10개 품목

(단위 : 달러, %)

순위	2012		2013		
	품목명	수출액	품목명	수출액	점유율
1	즉석섭취식품(도시락)	373,135,830	즉석섭취식품(도시락)	355,222,659	9.6
2	백설탕	281,019,487	유리, 도자기, 법랑	236,726,356	6.4
3	수산물가공품(기타)	263,154,949	갈색설탕	219,935,786	6.0
4	폴리에틸렌(PE)및 폴리프로필렌(PP)	184,702,085	수산물가공품(기타)	207,413,473	5.6
5	수산물가공품(어류)	155,040,100	수산화나트륨액/기성소오다액	147,618,418	4.0
6	기타(기구및용기포장)	117,980,244	기타주류	142,215,940	3.9
7	기타가공품	108,613,907	기타(기구및용기포장)	137,510,574	3.7
8	조미김	101,245,053	수산물가공품(어류)	107,548,124	2.9
9	배추김치	97,628,598	조미김	102,412,576	2.8
10	식물성크림	89,627,071	볶은커피	101,131,853	2.7
상위 10대 세부품목 합계		1,772,147,324	합계	1,757,735,759	47.7
수출액 총계		3,346,933,936	수출액 총계	3,686,795,411	100.0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년도

한편 수출량은 2011년 약 164만톤, 2012년 228만톤, 2013년 260만톤으로(주류 포함 시 281만톤)으로 전년대비 14.0% 증가하였으며,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량의 꾸준한 성장세는 국내 식품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프리미엄 제품의 개발과 함께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 2.4 지역별 생산실적 현황

2013년도 지역별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의 생산액이 약 13조 5,886억 원으로 전체 생산액의 약 28.7%를 차지한 가장 많은 생산액을 기록했다. 이어 충북 13.2%, 충남 8.9% 순으로 생산액이 큰 것으로 나타나 지난 3년과 동일한 순위를 보였다.

또한 2012년 새롭게 분류된 지역인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생산액 4,147억 원(0.9%)으로 지난해에 비어 소폭 감소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2,499억 원(0.5%) 보다 다소 높은 비중을 보여 향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및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등의 파급효과가 주목된다.

표 3-13 지역별 생산액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계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지	
계	434,783 (100.0)	398,505	15,764	59,609	473,878 (100.0)
경기도	128,042 (29.4)	104,103	2,304	29,478	135,886 (28.7)
충청북도	46,396 (10.7)	54,224	493	7,852	62,569 (13.2)
충청남도	45,929 (10.6)	33,365	612	8,276	42,254 (8.9)
경상남도	34,090 (7.8)	35,265	617	2,782	38,664 (8.2)
인천광역시	33,503 (7.7)	28,423	576	1,989	30,989 (6.5)
전라북도	23,712 (5.5)	24,501	2,947	1,580	29,028 (6.1)
경상북도	24,469 (5.6)	20,415	308	1,877	22,600 (4.8)
부산광역시	19,717 (4.5)	18,525	123	415	19,063 (4.0)

구분	2012	2013			계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지	
강원도	13,567 (3.1)	17,094	51	378	17,523 (3.7)
전라남도	13,855 (3.2)	11,264	5,178	349	16,790 (3.5)
서울특별시	13,495 (3.1)	14,375	264	458	15,097 (3.2)
대전광역시	9,553 (2.2)	7,857	22	1,940	9,819 (2.1)
대구광역시	8,088 (1.9)	8,181	17	1,162	9,360 (2.0)
울산광역시	9,049 (2.1)	6,529	2,216	82	8,827 (1.9)
광주광역시	4,374 (1.0)	7,778	24	952	8,753 (1.8)
세종특별자치시	4,881 (1.1)	4,125	3	29	4,157 (0.9)
제주특별자치도	2,064 (0.5)	2,482	8	9	2,499 (0.5)

주 : 1) 2013년 생산액에 주류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감안할 경우 지역별 비중은 소폭 변동 될 수 있음

2) 식품= 식품+식품조사처리, 기구·용기·포장지=기구·용기·포장지+용기류 (\*축산물가공품 제외)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년도

## 2.5 업체별 생산실적 현황

### 1) 식품 생산 상위 업체

2013년 법인업체 기준 생산액에서는 (주)농심이 1조 8,549억원(전년대비 생산액 3.7% 감소)으로 총 생산액의 4.7%를 차지해 1위에 올랐다. 그에 이어 오비맥주가 1조 7524억원(4.4%)로 2위, 씨제이제일제당(주) 1조 5853억원(4.0%)으로 3위를 차지했다.

2013년 생산실적부터 주류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오비맥주, 하이트진로가 상위 10위권에 진입했으나, 그를 제외하고 보면 상위 5대 식품 업체명은 전년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다만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간 순위만이 변경되었다.

빠리크라상이 상위 10대 업체에 새롭게 등장했고, 오뚜기는 생산액에서 동서식품과 빠리크라상에 밀려나 전년에 비해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생산액 기준 식품 상위 10대 제조업체(2013)

(단위 : 백만원, %)

순위	2012			순위	2013		
	업체명	생산액	점유율		업체명	생산액	점유율
1	(주)농심	1,925,277	4.7	1	농심	1,854,935	4.7
2	씨제이제일제당(주)	1,783,283	4.3	2	오비맥주	1,753,404	4.4
3	롯데칠성음료주식회사	1,314,272	3.2	3	씨제이제일제당	1,585,344	4.0
4	롯데제과(주)	1,238,579	3	4	하이트진로	1,579,831	4.0
5	(주)오리온	722,730	1.8	5	롯데제과	1,291,528	3.2
6	주식회사 오뚜기	693,829	1.7	6	롯데칠성음료	1,215,750	3.1
7	동서식품(주)	597,891	1.5	7	오리온	756,425	1.9
8	대상(주)	557,280	1.4	8	동서식품	673,590	1.7
9	해태제과식품(주)	476,837	1.2	9	파리크라상	618,649	1.6
10	(주)삼양사	456,680	1.1	10	오뚜기	613,900	1.5
상위 10대 업체 합계		9,766,658	23.8	상위 10대 업체 합계		11,943,356	30.0
식품 업체 생산액 총계		41,040,466	100	식품 업체 생산액 총계		39,850,184	100.0

주 : 식품 기업 생산액 합계 =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액 + 기구·용기 제조업 생산액(\*2013년부터 주류 업체 포함)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연도

2013년 생산액 기준 식품첨가물 업체 상위 1위는 엘지화학브이시엠으로 약 2,283억원(14.5%)를 생산하였으며, 이어 한화케미칼이 2,244억원(14.2%), 대상 1,354억원(8.6%)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대상이 1위에 올랐으나 엘지화학브이시엠과 한화케미칼이 전년에 비해 급속한 성장으로 보다 상위를 차지했다.

한편 식품첨가물 생산 업체의 경우 생산액 상위 10대 업체가 차지하는 생산액 비중은 60.3%로 전년의 56.5%에 높은 성장을 보였다.

표 3-15 생산액 기준 식품첨가물 상위 10대 제조업체(2013)

(단위 : 백만원, %)

순위	2012			순위	2013		
	업체명	생산액	점유율		업체명	생산액	점유율
1	대상(주)	161,578	11.7	1	엘지화학브이시엠	228,345	14.5
2	(주)엘지화학브이시엠	159,015	11.5	2	한화케미칼	224,410	14.2
3	백광산업(주)	117,260	8.5	3	대상	135,446	8.6
4	OCI(주)	88,690	6.4	4	백광산업	84,655	5.4
5	삼성정밀화학(주)	59,505	4.3	5	OCI	77,908	4.9
6	에스케이씨(주)	46,200	3.4	6	삼성정밀화학	56,719	3.6
7	서울장수 주식회사	40,363	2.9	7	에스케이씨	50,000	3.2
8	한국바스프(주)	39,641	2.9	8	엠에스씨	41,450	2.6
9	(주)엠에스씨	37,125	2.7	9	영진	27,327	1.7
10	(주)영진	28,531	2.1	10	엘지생활건강	23,593	1.5
상위 10대 업체 합계		777,909	56.5	상위 10대 업체 합계		949,854	60.3
식품첨가물 업체 생산액 총계		1,376,955	100	식품첨가물 업체 생산액 총계		1,576,391	100.0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연도

## 2) 식품 매출 상위 업체

2013년 매출액 상위 식품 업체로는 씨제이제일제당(주)이 2조 5,322억원(5.5%)으로 전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오비맥주 2조 1,401억원(4.6%), 농심 1조 9,751억원(4.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생산액 상위 3개 업체가 매출액 순위에서도 상위 순위를 차지했으나, 생산액 순위와 매출액 순위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표 3-16 매출액 기준 식품 상위 10대 제조업체(2013)

(단위 : 억원, %)

순위	업체명	생산액	매출액		
			국내판매액	수출액	
1	씨제이제일제당	15,853 (4.0)	25,322 (5.5)	23,735 (4.9)	1,587 (4.4)
2	오비맥주	17,534 (4.4)	21,401 (4.6)	21,301 (4.4)	101 (0.3)
3	농심	18,549 (4.7)	19,751 (4.3)	19,020 (3.9)	731 (2.0)
4	하이트진로	15,798 (4.0)	19,172 (4.2)	18,457 (3.8)	715 (2.0)
5	롯데칠성음료	12,158 (3.1)	18,039 (3.9)	16,832 (3.5)	1,207 (3.3)
6	롯데제과	12,915 (3.2)	12,075 (2.6)	11,501 (2.4)	574 (1.6)
7	동서식품	6,736 (1.7)	10,160 (2.2)	10,085 (2.1)	75 (0.2)
8	코카콜라음료	4,426 (1.1)	10,028 (2.2)	10,001 (2.1)	27 (0.1)
9	삼립식품	1,827 (0.5)	8,317 (1.8)	7,529 (1.5)	787 (2.2)
10	대상	5,316 (1.3)	8,138 (1.8)	7,424 (1.5)	714 (2.0)
상위 10대 업체 합계		111,113 (27.9)	152,403 (33.1)	145,885 (30.0)	6,518 (18.0)
식품 업체 매출액 총계		398,502 (100.0)	460,839 (100.0)	486,985 (100.0)	36,246 (100.0)

주 : 1) 식품 기업 생산액 합계 =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액+ 기구·용기 제조업 생산액

2) ( ) 안의 값은 전체 대비 비중임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2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2013

한편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액이 33.1%로 다소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그에 반해 매출액 상위 10개 기업의 수출액은 18.0%에 불과해 국내 식품 대기업들이 대부분 내수시장 수요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매출액 1위 업체인 씨제이제일제당(주)의 수출액 비중 역시 전체 매출액의 4.4%에 불과한데, 이외 상위 10대 업체의 수출 비중은 이보다 모두 낮게 나타나 가공식품의 해외 수출 활성화와 전략적 제품 개발이 요구된다.

2013년 식품첨가물 매출액 1위는 한화케미칼로 3,232억원(19.2%)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엘지화학브이시엠 2,264억원(13.5%)으로 2위, 대상이 1,834억원(10.9%)으로 3위를 기록했다.

표 3-17 매출액 기준 식품첨가물 상위 10대 제조업체(2013)

(단위 : 억원, %)

순위	업체명	생산액	매출액	매출액 구성	
				국내판매액	수출액
1	한화케미칼	2,244 (14.2)	3,232 (19.2)	1,616 (12.7)	1,616 (39.2)
2	엘지화학브이시엠	2,283 (14.5)	2,264 (13.5)	2,264 (17.8)	0 (0.0)
3	대상	1,354 (8.6)	1,834 (10.9)	1,096 (8.6)	738 (17.9)
4	백광산업	847 (5.4)	768 (4.6)	749 (5.9)	19 (0.5)
5	엠에스씨	415 (2.6)	592 (3.5)	231 (1.8)	362 (8.8)
6	에스케이씨	500 (3.2)	545 (3.2)	70 (0.6)	475 (11.5)
7	한국코카콜라유한회사	77 (0.5)	366 (2.2)	366 (2.9)	-
8	영진	273 (1.7)	297 (1.8)	297 (2.3)	-
9	유니드	163 (1.0)	247 (1.5)	72 (0.6)	175 (4.2)
10	엘지생활건강	236 (1.5)	242 (1.4)	237 (1.9)	5 (0.1)
상위 10대 업체 합계		8,392 (53.2)	10,386 (61.7)	6,997 (55.1)	3,389 (82.2)
식품첨가물 업체 매출액 총계		15,764 (100.0)	10,386 (100.0)	6,997 (100.0)	3,389 (100.0)

주 : ( ) 안의 값은 전체 대비 비중임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2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2013

한편 식품첨가물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61.7%로 식품첨가물 시장의 상위기업 쏠림현상을 발견 수 있다. 또한 매출액 상위 10개 업체의 수출액 비중은 전체 식품첨가물 수출의 82.2%로 상위 업체의 매출 비중에 비해 더욱 높은 수준으로, 식품첨가물 산업의 대다수 업체는 영세 소규모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2.6 공시기업 경영성과 분석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식료품 제조업' 및 '음료 제조업' 중 도축업,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곡물 도정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알코올음료 제조업, 생수 생산업을 제외한 320개<sup>35)</sup>(대기업 : 81개사, 중소기업 : 239개사)를 대상으로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KIS-Value III의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성장성 분석

2013년 식품산업 공시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2.1%로, 2012년 6.5%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치이며, 불과 2년 전인 2011년 12.5%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식품산업 공시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2008년 이후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진에 따른 소비 감소와 근래 가공식품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된다.

최근 5년간 대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전년대비 2.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0.2% 성장에 그쳐, 대기업의 시장성과가 상대적으로 나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35) 12월 결산법인 식품 기업 총 398개, 제조업 9,727개 기업 중 시계열이 유지되지 않는 기업은 분석에서 제외

표 3-18 매출액증가율

(단위 : 백만원, %)

기업규모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성장률 ('09~'13)
대기업	28,918,428	31,205,290	35,235,113	37,739,124	38,689,227	7.5
전년대비증가율	11.2	7.9	12.9	7.1	2.5	-
중소기업	6,160,639	6,878,453	7,606,911	7,875,031	7,890,036	6.4
전년대비증가율	13.9	11.7	10.6	3.5	0.2	-
기업 전체(320개)	35,079,066	38,083,743	42,842,024	45,614,156	46,579,263	7.3
전년대비증가율	11.7	8.6	12.5	6.5	2.1	-

자료 : NICE신용평가정보(주)

기업에 투하된 총자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인 식품산업 공시기업의 총자산 증가율은 2013년 3.8%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준이며, 2011년 이전과 비교하면 1/3에 불과한 매우 저조한 성장으로, 최근 경기 부진과 가계 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여력의 감소가 식품산업 전반의 성장 위축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3-19 총자산증가율

(단위 : 백만원, %)

기업규모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성장률 ('09~'13)
대기업	29,573,510	32,835,171	37,198,125	38,616,902	39,867,502	7.8
전년대비증가율	16.1	11.0	13.3	3.8	3.2	-
중소기업	5,110,120	5,518,785	6,219,774	6,633,635	7,089,478	8.5
전년대비증가율	9.7	8.0	12.7	6.7	6.9	-
기업 전체(320개)	34,683,629	38,353,956	43,417,899	45,250,537	46,956,980	7.9
전년대비증가율	15.1	10.6	13.2	4.2	3.8	-

자료 : NICE신용평가정보(주)

2013년 식품산업 공시기업의 유형자산 증가율은 5.6%로, 2010년 이래 4.5%~6.5% 내외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9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유형자산증가율은 통상 기업의 설비투자동향 및 성장잠재력과 관련하며, 유형자산

의 증가는 건물, 토지, 공장, 기계 등에 대한 투자 규모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근 유형자산증가율의 감소는 경기불황·내수부진 등으로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위협을 받으면서 자금조달 환경이 악화된 것과 관련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식품산업 공시기업의 경우 2013년 대기업(4.7%), 중소기업(9.7%)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유형자산 증가가 최근 4년간 더 높은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주문자위탁 생산·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의 증가와 관련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20 유형자산증가율

(단위 : 백만원, %)

기업규모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성장률 ('09~'13)
대기업	11,880,425	12,373,619	13,063,602	13,567,919	14,209,838	4.6
전년대비증가율	20.1	4.2	5.6	3.9	4.7	-
중소기업	2,130,145	2,334,373	2,604,695	2,809,486	3,082,283	9.7
전년대비증가율	7.1	9.6	11.6	7.9	9.7	-
기업 전체(320개)	14,010,570	14,707,992	15,668,297	16,377,405	17,292,121	5.4
전년대비증가율	17.9	5.0	6.5	4.5	5.6	-

자료 : NICE신용평가정보(주)

2013년 총자산 대비 유형자산 비율은 36.8%로, 대기업(35.6%), 중소기업(43.5%)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총자산 대비 유형자산 비율 증감은 2011년 (-)를 기록한 이후, 2012년 (+)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최근 4년간 중소기업의 총자산 대비 유형자산 비율이 보다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총자산 대비 유형자산 비율

(단위 : 백만원, %)

기업규모	2009	2010	2011	2012	2013
대기업	40.2	37.7	35.1	35.1	35.6
전년대비 증감(%p)	1.3	-2.5	-2.6	0.0	0.5
중소기업	41.7	42.3	41.9	42.4	43.5
전년대비 증감(%p)	-1.0	0.6	-0.4	0.5	1.1
기업 전체(320개)	40.4	38.3	36.1	36.2	36.8
전년대비 증감(%p)	1.0	-2.0	-2.3	0.1	0.6

자료 : NICE신용평가정보(주)

## 2) 수익성 분석

기업의 원가율 또는 마진율을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인 매출원가율은 국제곡물 가격의 하향안정화 및 2013년 하반기 이루어진 제품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2%p 하락한 71.6%로 나타났다.

전체 식품 기업의 매출원가율은 지난해에 이어 (-)성장을 보이며 2년 연속 감소하는 수치를 보였다.

표 3-22 매출원가율

(단위 : %, %p)

기업규모	2009	2010	2011	2012	2013
대기업	69.2	68.8	70.7	70.3	70.2
전년대비 증감(%p)	0.1	-0.4	1.9	-0.3	-0.2
중소기업	78.6	78.7	79.1	78.8	78.8
전년대비 증감(%p)	-0.2	0.1	0.5	-0.3	-0.1
기업 전체(320개)	70.8	70.6	72.2	71.8	71.6
전년대비 증감(%p)	0.1	-0.3	1.6	-0.4	-0.2

자료 : NICE신용평가정보(주)

특히 2013년 중소기업의 매출원가율은 78.8%로(전년대비 0.1%p 하락), 대기업 70.2%(전년대비 0.2%p 하락) 보다 약 8%p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이 수익 창출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식품산업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원재료 구입단계에서 구매량, 협상력 등의 차이, 재고관리 능력의 차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지에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3-23 판매관리비율

(단위: %, %p)

기업규모	2009	2010	2011	2012	2013
대기업	24.1	24.6	23.6	24.1	24.5
전년대비 증감(%p)	-0.7	0.5	-1.0	0.5	0.4
중소기업	16.0	16.2	15.9	16.8	16.9
전년대비 증감(%p)	-0.9	0.2	-0.3	0.9	0.1
기업 전체(320개)	22.7	23.1	22.2	22.8	23.2
전년대비 증감(%p)	-0.8	0.4	-0.9	0.6	0.4

자료 : NICE신용평가정보(주)

2014년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한 판매관리비 비율은 23.2%로 전년 대비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산업의 판매관리비율은 일반적인 제조업에 비해 높은 산업적 특성을 가지는데, 2011년 판매관리비율은 전년대비 (-)성장을 기록한 이후 2012년부터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판매관리비율이 중소기업에 비해 매년 8~9%p 가량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식품산업에서 주문자위탁생산·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조자개발생산(ODM)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 유통망에 의한 판매가 이루어져 제품의 판촉이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시장의 특성,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상의 이유로 대기업만큼 판촉경쟁에 임할 수 없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매출원가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판매관리비율의 상승에 따라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3년 5.2%로 전년 대비 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0년 이래 4년 연속 전년대비 (-)성장을 보이고 있어, 식품기업의 영업효율성이 저하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표 3-24 매출액영업이익률

(단위 : %, %p)

기업규모	2009	2010	2011	2012	2013
대기업	6.7	6.6	5.7	5.6	5.4
전년대비 증감(%p)	0.6	-0.1	-0.9	-0.1	-0.2
중소기업	5.5	5.2	5.0	4.4	4.4
전년대비 증감(%p)	1.1	-0.3	-0.2	-0.6	0.0
기업 전체(320개)	6.5	6.4	5.6	5.4	5.2
전년대비 증감(%p)	0.7	-0.1	-0.8	-0.2	-0.2

자료 : NICE신용평가정보(주)

2013년 전체 식품기업의 이자 및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5.1%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재무활동 등 영업활동 이외의 부문에서 발생한 경영성과를 동시에 측정하는 지표인데, 식품기업의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2011년 이후 2년간 전년대비 (-)성장하다가 2013년 (+)로 전환, 또는 보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5.4%, 중소기업의 경우 3.8%로 양자의 영업이익률 간의 격차보다 0.6%p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부채규모의 차이 및 조달금리 차이로 인한 이자비용의 차이와 단기투자자산을 활용한 영업외 수익의 규모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표 3-25 매출액세전순이익률

(단위 : %, %p)

	2009	2010	2011	2012	2013
대기업	7.6	10.1	6.2	5.4	5.4
전년대비증가율	3.1	2.4	-3.9	-0.8	0.0
중소기업	4.3	3.9	4.0	3.6	3.8
전년대비증가율	2.1	-0.4	0.1	-0.4	0.1
기업 전체	7.1	9.0	5.8	5.1	5.1
전년대비증가율	2.9	1.9	-3.2	-0.7	0.0

자료 : NICE신용평가정보(주)

매출액 대 EBIT 비율은 2013년 6.0%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기업의 경우 6.2%(전년대비 0.1%p 하락)로 중소기업 5.2%(전년대비 0.1%p 증가)보다 소폭 높은 수치를 보였다.

EBIT는 세전순이익에 금융비용을 더해 산출되므로, 자금조달방법에 관계없이 기업의 수익성을 측정할 수 있다.

표 3-26 매출액 대 EBIT

(단위 : %, %p)

기업규모	2009	2010	2011	2012	2013
대기업	8.6	10.9	6.9	6.2	6.2
전년대비 증감(%p)	3.1	2.2	-4.0	-0.7	-0.1
중소기업	6.0	5.4	5.5	5.2	5.2
전년대비 증감(%p)	1.9	-0.6	0.0	-0.3	0.1
기업 전체(320개)	8.2	9.9	6.6	6.0	6.0
전년대비 증감(%p)	2.9	1.7	-3.2	-0.6	0.0

자료 : NICE신용평가정보(주)

### 3) 안전성 분석

2013년 식품 공시기업의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2.4%p 감소한 73.4%로 나타나 100% 이하의 안정적인 수준이다.

부채비율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를 통해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다. 식품산업에서 중소기업 부채비율은 대기업의 약 두 배 가량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곧 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낮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한편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부채비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3-27 부채비율

(단위 : %, %p)

기업규모	2009	2010	2011	2012	2013
대기업	67.5	61.2	74.2	69.1	66.8
전년대비 증감(%p)	-7.3	-6.3	13.0	-5.0	-2.3
중소기업	128.9	132.7	135.6	127.5	122.3
전년대비 증감(%p)	-10.2	3.9	2.9	-8.1	-5.2
기업 전체(320개)	74.4	68.6	80.9	75.7	73.4
전년대비 증감(%p)	-8.0	-5.8	12.3	-5.2	-2.4

자료 : NICE신용평가정보(주)

부채비율이 감소하면서 2013년 식품 공시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전년 대비 0.8%p 증가한 57.7%를 기록했다<sup>36)</sup>. 또한 중소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이 45.0%로 대기업 59.9%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비율은 총자본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운용할 수 있는 자본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안전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3-28 자기자본비율

(단위 : %, %p)

기업규모	2009	2010	2011	2012	2013
대기업	59.7	62.0	57.4	59.1	59.9
전년대비 증감(%p)	2.5	2.3	-4.6	1.7	0.8
중소기업	43.7	43.0	42.4	44.0	45.0
전년대비 증감(%p)	1.9	-0.7	-0.5	1.5	1.0
기업 전체(320개)	57.3	59.3	55.3	56.9	57.7
전년대비 증감(%p)	2.5	2.0	-4.0	1.6	0.8

자료 : NICE신용평가정보(주)

36) 부채비율은 자기자본비율과 역(逆)의 관계로,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은 낮아지게 됨

2013년 식품기업의 유동비율은 전년대비 3.2% 감소한 130.9%로,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유동비율이 전년대비 4.0%p 감소했고, 중소기업의 경우 전년대비 1.0%p 감소했다.

표 3-29 유동비율

(단위 : %, %p)

기업규모	2009	2010	2011	2012	2013
대기업	124.8	123.6	111.8	139.0	135.0
전년대비 증감(%p)	7.4	-1.2	-11.8	27.2	-4.0
중소기업	119.0	116.5	114.9	117.1	116.1
전년대비 증감(%p)	2.7	-2.5	-1.6	2.2	-1.0
기업 전체(320개)	123.6	122.2	112.4	134.2	130.9
전년대비 증감(%p)	6.4	-1.4	-9.8	21.8	-3.2

자료 : NICE신용평가정보(주)

### 3.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현황

다음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3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2013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1조 7,920억원으로 전년대비 5.2% 성장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성장률은 11.5%로 2009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3-30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단위 : 억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전년대비 성장률	연평균 성장률 (’09~’13)
							11.5
생산액	9,598	10,671	13,682	14,091	14,820	5.2	11.5
수입액	2,417	2,593	3,729	3,532	3,854	9.1	12.4
수출액	415	460	556	584	754	29.1	16.1
국내 시장규모	11,600	12,804	16,855	17,039	17,920	5.2	11.5

주: 시장규모 = 생산+수입-수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13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분석결과 발표」, 2014. 8. 6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이러한 성장은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소득수준 향상, 인구 고령화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서울 및 5대 도시 성인 남녀 1,60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sup>37)</sup>, ‘평소 건강관리를 위한 노력’으로 좋은 음식 섭취가 73.7%, 운동 53.5%, 건강기능식품 섭취 49.1% 순인 것으로 조사되어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관리 노력 증대가 건강기능식품 소비 증가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38)</sup>.

37) 나아가 49.1%가 건강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으며, 46.7%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조사명: 「2014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14.11

\*대상: 서울 및 5대 도시 성인 남녀 1,600만명(구매력이 낮은 20대 미만, 70대 이상을 제외) 대상 조사

\*기간: 2013.8~2014.7

2013년 건강기능식품 총 생산액은 1조 4,820억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하였고, 총 생산액 중 내수용은 전년대비 4.1% 증가에 그친 반면, 수출용은 29.1%로 매우 큰 성장을 보였다.

총생산량은 3만 1,446톤으로 전년대비 9.1% 감소를 보이며 내수용 생산량(△9.6%)의 감소가 특히 눈에 띄었는데, 이는 동기간 생산액 증가를 고려할 때 건강기능식품의 고급화 경향 또는 소비 품목군의 양태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유추된다.

표 3-31 건강기능식품 생산현황

(단위 : 억원, Ton,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전년대비 성장률
총생산액		9,598	10,671	13,682	14,091	14,820	5.2
총생산량		19,885	25,361	40,258	34,599	31,446	-9.1
내수용	생산액	9,184	10,211	13,126	13,507	14,066	4.1
	생산량	19,293	24,994	39,611	33,735	30,490	-9.6
수출용	생산액	415	460	556	584	754	29.1
	생산량	592	367	647	864	956	10.6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13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분석결과 발표」, 2014. 8. 6

한편 2013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개별인정형’ 제품(전년대비 29% 증가)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전년대비 55% 증가)의 증가가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품목별 생산액을 살펴보면, 홍삼이 5,869억원으로 39.6%를 차지해 가장 높은 생산액 보였고, 이어 개별인정형<sup>38)</sup> 2,324억원(15.7%), 비타민·무기질 1,747(11.8%), 프로바이오틱스 804억원(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년대비 성장률이 큰 품목으로는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추출물<sup>40)</sup>

38) 또한 여성이고, 40대 이상,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기능식품 섭취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39) 개별인정형: 고시된 품목 이외에 안전성, 기능성을 개별로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백수오등 복합추출물, 당귀혼합추출물 등)

40) 밀크씨슬추출물: 실리마린 성분이 활성산소로부터 간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작용 등으로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이 전년대비 128.1%로 급격히 성장하였고, 프로바이오틱스 55.2%, 개별인정형 28.6%,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sup>41)</sup> 23.0%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2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생산액

(단위: 억원)

품목	2011		2012		2013		
	생산액	비중	생산액	비중	생산액	비중	성장률
홍삼	7,191	52.6	6,484	46.0	5,869	39.6	-9.5
개별인정형	1,435	10.5	1,807	12.8	2,324	15.7	28.6
비타민·무기질	1,561	11.4	1,646	11.7	1,747	11.8	6.1
프로바이오틱스	405	3.0	518	3.7	804	5.4	55.2
알로에	692	5.1	687	4.9	628	4.2	-8.6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207	1.5	440	3.1	541	3.7	23.0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509	3.7	497	3.5	490	3.3	-1.4
인삼	381	2.8	450	3.2	466	3.1	3.6
말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추출물	138	1.0	135	1.0	308	2.1	128.1
감마-리놀렌산함유유지	224	1.6	152	1.1	186	1.3	22.4
기타 품목	939	6.9	1,275	9.0	1,457	9.8	14.3
합계	13,682	100.0	14,091	100.0	14,820	100.0	5.2

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10.1.1일부터 개별인정형 품목에서 고시형 품목으로 재분류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13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분석결과 발표」, 2014. 8. 6

특히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을 제품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백수오등복합추출물(갱년기 여성 건강)이 전체의 30%(704억원)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 보였고, 그 뒤를 이어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간 건강) 23%(541억원), 당귀혼합추출물(면역기능) 14%(314억원), 마태열수추출물(체지방 감소) 10%(229억원)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41)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탄수화물에서 지방으로의 합성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2013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별 생산실적을 보면, 면역기능개선이 2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혈행개선(21.9%), 항산화(20.6%), 영양소 보충(6.5%), 장건강(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2년과 비교할 때 개별인정형 제품 생산 품목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감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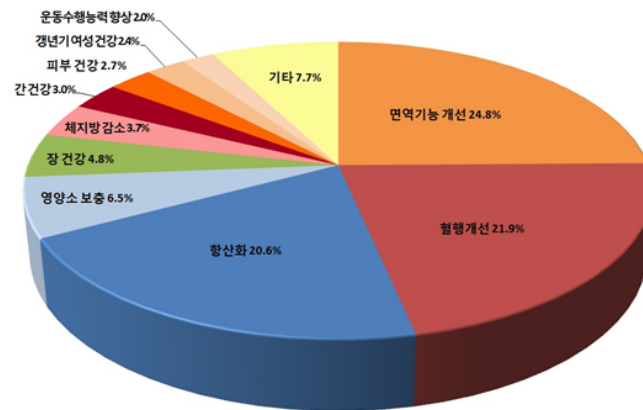


그림 3-1 2013년 기능성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점유율)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13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분석결과 발표」, 2014. 8. 6

한편 2013년 8월~2014년 7월에 걸쳐 실시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실태조사에서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 문제로 1위 피로회복(31.8%), 2위 면역력 증진(26.6%), 3위 전반적 건강증진(14.7%), 4위 영양보충(13.5%), 5위 혈행개선(4.5%) 등의 순으로 관심도가 조사되었는데, 이를 기능성별 생산 실적과 비교하면 향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시장수요 파악을 통한 성장 전략이 보다 요구된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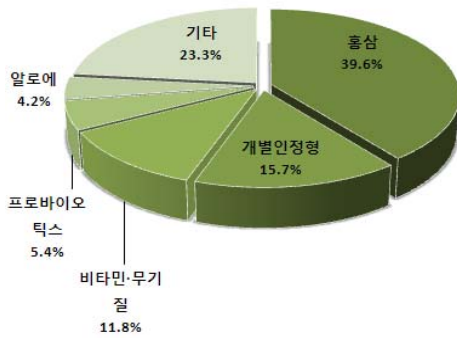


그림 3-2 2013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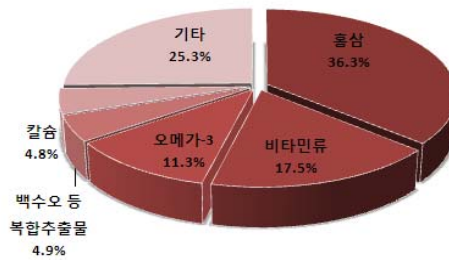


그림 3-3 2014 소비자 구입 금액 기준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자료 : 2014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14.11

2013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상위 제조업체는 (주)한국인삼공사(4,288억원, 28.8%)가 홍삼제품의 지속적인 인기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1위로 나타났으며, (주)한국야쿠르트(786억원, 5.3%), (주)서홍캡셀(549억원, 3.9%), (주)노바렉스(509억원, 3.4%), 코스맥스바이오(507억원, 3.4%) 등의 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산실적 상위 10대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건강기능식품 출하액의 59.2%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간의 뚜렷한 양극화가 발견된다.

또한 2013년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판매 업체수는 96,199개소로 전년대비 10% 증가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449개소(전년대비 3.2% 증가), 수입업 3,139개소(전년대비 7.3% 증가), 판매업 92,611개소(전년대비 10.3%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부록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3년 글로벌 식품기업 상위 100대 기업 ..... 85

2013년 국내 식품기업 상위 100대 기업 ..... 90



## &lt;부록 1&gt; 2013년 글로벌 식품기업 상위 100대 기업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Company(기업명)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성장률 (09~13)	
							비중	
All Company		2,075,329	2,151,878	2,229,399	2,304,771	2,379,081	100.0	3.5
1	Nestle S.A.	50,668	54,909	57,303	59,652	61,863	2.6	5.1
2	Mondelez International Inc.	-	-	405	50,982	52,497	2.2	-
3	Unilever	31,945	33,105	34,555	35,990	36,906	1.6	3.7
4	Kraft Foods Group Inc.	-	-	-	30,700	32,032	1.3	-
5	Mars, Inc.	28,087	29,111	30,102	30,969	31,892	1.3	3.2
6	JBS S.A.	21,618	24,277	27,063	28,109	29,185	1.2	7.8
7	PepsiCo, Inc.	20,978	21,940	24,669	25,779	27,048	1.1	6.6
8	Brasil Foods S.A.	20,144	21,288	22,548	23,643	24,799	1.0	5.3
9	Tyson Foods, Inc.	22,367	22,922	23,546	24,160	24,731	1.0	2.5
10	Groupe Danone	19,717	20,006	20,828	21,703	22,422	0.9	3.3
11	General Mills, Inc.	13,466	14,084	16,381	17,335	17,945	0.8	7.4
12	Kellogg Company	13,887	14,317	14,779	16,881	17,435	0.7	5.9
13	Grupo Bimbo S.A. de C.V.	11,109	11,715	14,304	14,978	15,742	0.7	9.1
14	Groupe Lactalis	5,304	5,998	13,993	14,424	14,842	0.6	29.3
15	The Hershey Company	10,779	11,178	11,468	11,728	12,040	0.5	2.8
16	ConAgra Foods, Inc.	9,470	9,931	10,300	10,767	11,543	0.5	5.1
17	Campbell Soup Company	9,080	9,370	9,661	9,866	10,142	0.4	2.8
18	Ebro Foods S.A	7,826	8,280	8,900	9,351	9,859	0.4	5.9
19	Shuanghai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	-	-	-	-	9,515	0.4	-
20	Nippon Meat Packers, Inc.	8,781	8,948	9,139	9,269	9,413	0.4	1.8
21	Lotte Group	6,976	7,997	8,426	8,876	9,365	0.4	7.6
22	Barilla Holding	7,943	8,275	8,587	8,876	9,155	0.4	3.6
23	FrieslandCampina	7,136	7,482	7,692	8,136	8,384	0.4	4.1
24	Itoham Foods Inc.	7,313	7,561	7,821	8,088	8,342	0.4	3.3

순위	Company(기업명)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성장률 (09~'13)	
							비중	
25	China Agri-Industries Holdings Limited	5,960	6,490	7,043	7,569	8,163	0.3	8.2
26	Wilmar International Limited	4,737	5,331	6,008	6,685	7,470	0.3	12.1
27	Ajinomoto Co., Inc.	6,202	6,478	6,768	7,050	7,343	0.3	4.3
28	Ferrero S.p.A.	6,774	6,853	7,022	7,152	7,304	0.3	1.9
29	H.J. Heinz Company	11,445	11,888	12,529	12,956	7,103	0.3	-11.2
30	Nissin Food Products Co., Ltd.	5,836	6,141	6,480	6,779	7,085	0.3	5.0
31	Sung Fung Foods Industrial Ltda	4,905	5,341	5,797	6,229	6,718	0.3	8.2
32	Ezaki Glico Co., Ltd.	5,516	5,640	5,745	5,883	6,001	0.3	2.1
33	Heilongjiang Agriculture Co., Ltd.	4,203	4,576	4,967	5,337	5,756	0.2	8.2
34	Berkshire Hathaway & 3G Capital	-	-	-	-	5,751	0.2	-
35	Arla Foods Amba	5,167	5,221	5,594	5,578	5,649	0.2	2.3
36	CCPR/Itambe	3,697	4,185	4,445	4,978	5,596	0.2	10.9
37	Inner Mongolia Yili Industrial Group Co., Ltd.	4,015	4,390	4,703	4,978	5,398	0.2	7.7
38	McCormick & Company, Incorporated	4,008	4,188	4,465	4,606	4,773	0.2	4.5
39	Prima Meat Packers, Ltd.	4,286	4,419	4,558	4,641	4,755	0.2	2.6
40	George Weston Foods Limited	3,941	4,147	4,360	4,541	4,740	0.2	4.7
41	Tingyi (Cayman Islands) Holding Corp	3,537	3,837	4,140	4,402	4,679	0.2	7.2
42	Hormel Foods Corporation	4,122	4,122	4,125	4,317	4,392	0.2	1.6
43	Bongrain SA	3,766	3,961	4,124	4,228	4,346	0.2	3.6
44	Nichirei Corporation	3,632	3,775	3,919	4,079	4,230	0.2	3.9
45	Mengniu Dairy Co. Ltd	3,020	3,339	3,663	3,808	4,123	0.2	8.1

순위	Company(기업명)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성장률 (09~'13)	
							비중	
46	Kitoku Shinryo Co., Ltd.	4,033	4,190	4,241	4,181	4,098	0.2	0.4
47	Almarai Co.	2,977	3,205	3,467	3,751	4,025	0.2	7.8
48	Hillshire Brands Company	-	-	-	3,755	3,909	0.2	-
49	Meiji Dairies Corporation	3,621	3,681	3,760	3,814	3,863	0.2	1.6
50	Bright Food (Group) Co., Ltd.	2,753	3,008	3,303	3,497	3,766	0.2	8.1
51	Flowers Foods, Inc.	857	888	914	1,059	3,591	0.2	43.1
52	Cargill, Incorporated	2,498	2,720	3,077	3,310	3,585	0.2	9.5
53	Orkla ASA	3,061	3,173	3,281	3,397	3,576	0.2	4.0
54	Itami Sangyo Co Ltd	3,464	3,599	3,650	3,606	3,542	0.1	0.6
55	Saputo Inc	2,893	3,072	3,247	3,382	3,512	0.1	5.0
56	Toyo Suisan Kaisha Ltd	2,896	3,053	3,201	3,323	3,434	0.1	4.4
57	Bel Group	2,940	3,063	3,176	3,302	3,415	0.1	3.8
58	Fonterra Co-operative Group Limited	2,555	2,904	3,063	3,194	3,352	0.1	7.0
59	Bunge Limited	2,227	2,386	2,850	3,104	3,324	0.1	10.5
60	Alfa, S.A. de C.V.	2,941	3,042	2,975	3,084	3,188	0.1	2.0
61	Grupo Freiremar	2,811	2,886	2,969	3,064	3,154	0.1	2.9
62	Permira	2,388	2,956	3,024	3,107	3,127	0.1	7.0
63	PT Indofood Sukses Makmur Tbk	2,502	2,685	2,832	2,985	3,126	0.1	5.7
64	Perfetti Van Melle	2,640	2,729	2,840	2,947	3,055	0.1	3.7
65	Valio Group	2,561	2,665	2,780	2,923	3,041	0.1	4.4
66	Vitasoy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	1,581	1,968	2,317	2,663	2,980	0.1	17.2
67	Del Monte Foods Company	2,745	2,850	2,918	2,871	2,935	0.1	1.7
68	Associated British Foods plc	2,659	2,734	2,797	2,858	2,917	0.1	2.3
69	Sodiaal	2,411	2,454	2,828	2,832	2,837	0.1	4.2

순위	Company(기업명)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성장률 (09~'13)	
							비중	
70	Mead Johnson Nutrition Company	2,727	2,877	2,990	3,246	2,809	0.1	0.7
71	Mccain Foods Limited	2,354	2,460	2,568	2,701	2,804	0.1	4.5
72	Dean Foods Company	2,861	2,941	2,957	3,009	2,773	0.1	-0.8
73	Deoleo	-	-	2,489	2,582	2,696	0.1	-
74	Uni-President Enterprises Corp.	2,169	2,305	2,444	2,567	2,693	0.1	5.6
75	Cereal Partners Worldwide	2,182	2,296	2,422	2,554	2,667	0.1	5.1
76	Dr. August Oetker KG	2,387	2,507	2,503	2,557	2,649	0.1	2.6
77	United Biscuits	2,969	3,035	3,120	3,199	2,629	0.1	-3.0
78	Post Foods LLC	-	-	-	2,503	2,621	0.1	-
79	Bolton Group	2,431	2,470	2,515	2,550	2,591	0.1	1.6
80	Lee Kum Kee Co. Ltd.	1,885	2,045	2,218	2,387	2,577	0.1	8.1
81	Premier Foods plc	2,422	2,484	2,422	2,490	2,556	0.1	1.4
82	Snow Brand Milk Products Co., Ltd.	2,370	2,451	2,452	2,499	2,554	0.1	1.9
83	Aurora Alimentos	2,163	2,250	2,343	2,413	2,491	0.1	3.6
84	Meiji Seika Kaisha, Ltd.	2,396	2,421	2,429	2,442	2,450	0.1	0.6
85	Tine Group	2,419	2,289	2,336	2,393	2,407	0.1	-0.1
86	2 Sisters Food Group	-	-	2,183	2,302	2,407	0.1	-
87	Cloetta AB	450	460	469	2,331	2,377	0.1	51.6
88	Abbott Laboratories	2,246	2,317	2,342	2,415	2,369	0.1	1.3
89	Gujarat Cooperative Milk Marketing Federation Ltd.	1,428	1,659	1,842	2,097	2,361	0.1	13.4
90	Goodman Fielder Limited	1,968	2,053	2,133	2,206	2,289	0.1	3.8
91	Joaquim Oliveira S.A. Participações	1,876	1,985	2,073	2,174	2,278	0.1	5.0
92	Danish Crown AmbA	2,062	2,122	2,181	2,218	2,266	0.1	2.4

순위	Company(기업명)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성장률 (09~'13)	
							비중	
93	The United Confectionary Manufacturers management company	1,735	1,839	1,957	2,072	2,190	0.1	6.0
94	Bonduelle S.A.	1,901	1,969	2,044	2,123	2,182	0.1	3.5
95	M. Das Branco SA Ind Com de	1,318	1,497	1,712	1,924	2,160	0.1	13.2
96	Maruha Nichiro Holdings, Inc.	2,132	2,131	2,126	2,126	2,117	0.1	-0.2
97	Pinnacle Foods Group, LLC	1,626	1,629	1,636	1,636	2,112	0.1	6.8
98	Q.P. Corporation	1,949	1,994	2,034	2,070	2,108	0.1	2.0
99	The Intersnack Group	1,192	1,246	1,310	1,372	2,084	0.1	15.0
100	Findus Group Limited	1,856	1,931	2,009	2,042	2,074	0.1	2.8
101	CJ Corporation	1,856	1,906	1,964	2,006	2,065	0.1	2.7
109	Dongwon F&B Co., Ltd.	1,767	1,823	1,864	1,910	1,961	0.1	2.6
120	Nong Shim Holdings Co., Ltd.	1,510	1,585	1,671	1,747	1,829	0.1	4.9
151	Crown Confectionery Co., Ltd.	1,094	1,160	1,237	1,291	1,365	0.1	5.7
225	Hansung Enterprise Co., Ltd.	706	717	730	743	756	0.0	1.7
283	Seoul Milk Co., Ltd.	539	548	562	571	581	0.0	1.9
292	Samyang Foods Co., Ltd.	468	490	514	535	564	0.0	4.7
307	Daesang Corporation	464	479	498	511	531	0.0	3.4
322	Minong Bio Co., Ltd.	531	526	517	510	502	0.0	-1.4
333	Ottogi Corporation	431	444	460	469	485	0.0	3.0
362	Binggrae Co., Ltd.	398	408	417	425	433	0.0	2.1
372	Sajo Industrial Co.	347	363	385	394	418	0.0	4.7

주 : 시장가치(Market Value) 기준임

자료 : DATAMONITOR Interactive Consumer Database. 2014.10

## &lt;부록 2&gt; 2013년 국내 식품기업 상위 100대 기업

(단위 : 백만원, %)

순위	Company(기업명)	2009	2010	2011	2012	2013	비중	연평균 성장률 (09~13)
		35,457,431	38,940,038	44,000,797	48,486,883	49,839,649	100.0	8.9
1	CJ제일제당(주)	3,838,732	3,962,652	4,421,058	4,671,189	4,513,827	9.1	4.1
2	롯데칠성음료(주)	1,221,723	1,301,767	1,564,311	2,015,765	2,029,594	4.1	13.5
3	(주)농심	1,845,572	1,895,168	1,970,686	1,958,918	1,870,807	3.8	0.3
4	(주)오뚜기	1,363,915	1,372,965	1,513,050	1,652,592	1,697,865	3.4	5.6
5	(주)파리크라상	1,001,578	1,312,611	1,573,366	1,624,373	1,651,264	3.3	13.3
6	롯데제과(주)	1,316,786	1,416,469	1,521,967	1,524,226	1,610,077	3.2	5.2
7	대상(주)	1,008,988	1,202,372	1,392,913	1,552,521	1,570,275	3.2	11.7
8	(주)롯데푸드	514,008	609,460	946,949	1,007,190	1,568,261	3.1	32.2
9	동서식품(주)	1,320,756	1,421,790	1,500,949	1,559,804	1,527,031	3.1	3.7
10	(주)삼양사	-	-	221,726	1,312,355	1,282,861	2.6	-
11	(주)동원F&B	796,561	1,020,128	1,099,095	1,191,224	1,246,609	2.5	11.8
12	남양유업(주)	1,008,917	1,028,083	1,202,937	1,340,335	1,205,331	2.4	4.5
13	매일유업(주)	834,372	909,515	944,370	1,052,311	1,138,185	2.3	8.1
14	코카콜라음료(주)	604,520	700,520	836,763	945,071	1,003,959	2.0	13.5
15	(주)한국야쿠르트	1,081,427	897,948	956,016	981,466	992,463	2.0	-2.1
16	(주)삼립식품	218,291	269,254	628,959	802,653	968,029	1.9	45.1
17	(주)빙그레	628,592	684,901	720,634	789,102	805,059	1.6	6.4
18	(주)오리온	597,793	677,522	760,663	820,657	792,164	1.6	7.3
19	(주)한국인삼공사	746,736	842,757	940,081	831,902	784,799	1.6	1.3
20	해태제과식품(주)	612,585	668,863	701,306	719,774	719,892	1.4	4.1
21	(주)사조해표	465,803	484,817	534,825	583,788	607,417	1.2	6.9
22	(주)농협목우촌	393,732	453,590	506,313	516,975	512,440	1.0	6.8
23	비알코리아(주)	406,214	426,063	452,360	482,923	502,727	1.0	5.5
24	오뚜기라면(주)	360,742	345,899	389,360	442,547	460,194	0.9	6.3
25	(주)크라운제과	347,440	370,320	400,482	418,238	428,763	0.9	5.4
26	(주)동서	308,838	353,666	407,146	421,461	425,765	0.9	8.4
27	(주)사조대림	291,010	308,422	371,466	378,399	399,419	0.8	8.2
28	(주)삼양제맥스	307,649	367,311	394,999	422,085	394,148	0.8	6.4

순위	Company(기업명)	2009	2010	2011	2012	2013	비중	연평균 성장률 (09~13)
30	롯데네슬레코리아(주)	378,013	370,919	393,736	371,737	355,013	0.7	-1.6
31	(주)올품	55,681	78,766	70,657	85,836	346,441	0.7	57.9
32	삼양식품(주)	298,496	273,360	294,745	315,256	292,920	0.6	-0.5
33	(주)마니커	317,770	295,429	313,094	290,692	278,039	0.6	-3.3
34	(주)푸르밀	201,138	227,525	268,841	313,156	272,202	0.5	7.9
35	해태음료(주)	260,099	252,538	209,395	254,396	260,401	0.5	0.0
36	사조씨푸드(주)	198,462	219,576	280,805	281,986	253,698	0.5	6.3
37	에스피엘(주)	149,549	197,420	249,460	253,342	251,261	0.5	13.9
38	태경농산(주)	208,260	211,847	236,652	222,409	248,425	0.5	4.5
39	샘표식품(주)	184,162	195,709	226,284	227,069	239,157	0.5	6.8
40	(주)샤니	330,286	393,794	298,472	246,533	237,429	0.5	-7.9
41	(주)비락	149,509	160,888	177,768	221,524	229,780	0.5	11.3
42	(주)대경오앤티	78,108	86,979	169,479	238,355	218,493	0.4	29.3
43	동아오츠카(주)	163,176	171,608	191,505	210,480	212,822	0.4	6.9
44	대상에프앤에프(주)	205,956	239,734	197,499	190,766	210,096	0.4	0.5
45	웅진식품(주)	175,050	191,517	219,461	215,880	192,298	0.4	2.4
46	(주)정식품	148,500	161,360	190,829	211,542	188,772	0.4	6.2
47	(주)카페베네	22,396	102,256	167,960	210,856	176,255	0.4	67.5
48	한국제분(주)	122,165	111,944	139,105	153,114	175,058	0.4	9.4
49	엘에스지스카이세프코리아(주)	101,032	119,640	134,676	149,508	160,234	0.3	12.2
50	한국도미노피자(주)	97,962	108,724	113,924	135,079	159,126	0.3	12.9
51	CJ씨푸드(주)	100,555	111,083	135,743	166,841	154,322	0.3	11.3
52	(주)도드람푸드	113,659	109,572	116,398	131,738	153,934	0.3	7.9
53	동서유지(주)	130,844	139,400	174,822	159,378	151,919	0.3	3.8
54	(주)밀다윈	21,568	22,725	72,943	109,326	140,302	0.3	59.7
55	(주)엠에스씨	82,897	95,411	112,593	114,908	127,199	0.3	11.3
56	(주)동원홈푸드	81,482	88,552	105,184	121,006	126,179	0.3	11.6
57	(주)참프레	-	-	-	-	125,387	0.3	-
58	풀무원건강생활(주)	77,558	91,673	100,027	110,245	124,584	0.2	12.6
59	(주)일화	93,754	107,760	119,674	121,367	123,289	0.2	7.1

순위	Company(기업명)	2009	2010	2011	2012	2013	비중	연평균 성장률 (09~13)
61	(주)사조남부햄	45,799	47,956	53,990	98,672	110,504	0.2	24.6
62	농심켈로그(주)	71,567	80,677	90,361	86,809	110,439	0.2	11.5
63	우일수산(주)	80,856	86,490	101,667	101,291	107,035	0.2	7.3
64	(주)진주햄	73,659	81,827	95,180	98,182	106,279	0.2	9.6
65	신송식품(주)	31,400	80,481	88,942	94,088	101,507	0.2	34.1
66	에쓰푸드홀딩스(주)	62,426	75,212	99,665	95,509	100,104	0.2	12.5
67	(주)조흥	56,856	66,698	99,010	96,207	99,637	0.2	15.1
68	(주)놀부	104,719	111,296	-	79,415	99,402	0.2	-1.3
69	(주)세우	82,375	88,189	95,723	92,958	99,094	0.2	4.7
70	일동후디스(주)	82,389	97,475	133,286	122,239	99,002	0.2	4.7
71	카다리식품(주)	39,721	53,377	62,665	85,548	92,325	0.2	23.5
72	(주)코리아더카드	89,074	106,311	99,962	105,418	89,626	0.2	0.2
73	(주)주원산오리	51,373	69,141	90,577	94,812	83,796	0.2	13.0
74	삼진물산(주)	65,846	67,612	75,424	81,314	81,888	0.2	5.6
75	대성실업(주)	53,619	50,074	43,559	59,274	81,797	0.2	11.1
76	천일식품(주)	40,202	49,159	64,197	73,048	81,582	0.2	19.4
77	대선제분(주)	110,236	104,206	91,244	89,771	81,152	0.2	-7.4
78	(주)청우식품	63,011	67,891	76,280	78,391	81,129	0.2	6.5
79	(주)축림	70,503	108,865	110,989	87,611	78,886	0.2	2.8
80	(주)마니커에프앤지	45,021	51,656	59,079	71,031	74,798	0.2	13.5
81	(주)대두식품	45,126	58,232	65,164	71,440	74,479	0.1	13.3
82	(주)민속한우	98,258	86,564	62,465	61,596	72,355	0.1	-7.4
83	천호식품(주)	6,094	52,970	59,993	56,007	71,871	0.1	85.3
84	(주)피피이씨음식생면	45,474	50,182	55,809	59,320	71,448	0.1	12.0
85	동서물산(주)	54,547	63,141	64,411	67,401	70,862	0.1	6.8%
86	상미식품(주)	47,510	46,427	55,124	63,588	70,853	0.1	10.5
87	농업회사법인돈마루(주)	44,070	56,213	44,094	59,511	70,334	0.1	12.4
88	(주)면사랑	46,704	53,462	61,717	66,204	69,696	0.1	10.5
89	(주)풍림푸드	47,825	47,836	52,821	54,115	68,653	0.1	9.5
90	(주)유맥	38,627	42,583	40,630	65,493	67,947	0.1	15.2

순위	Company(기업명)	2009	2010	2011	2012	2013	비중	연평균 성장률 (09~13)
92	원앤원(주)	60,359	64,546	62,469	69,002	65,966	0.1	2.2
93	(주)푸드웨어	35,650	39,293	52,934	58,626	65,647	0.1	16.5
94	(주)팜터	19,416	33,118	62,982	77,065	65,485	0.1	35.5
95	(주)푸드웰	54,815	61,352	63,402	70,099	64,554	0.1	4.2
96	(주)렉스팜	28,661	38,926	53,349	54,844	62,869	0.1	21.7
97	신송산업(주)	19,682	48,759	54,959	59,759	62,566	0.1	33.5
98	유성물산교역(주)	52,238	55,244	50,808	52,075	62,165	0.1	4.4
99	신라에스지(주)	29,951	30,219	44,985	70,649	62,060	0.1	20.0
100	(주)계림물산	47,220	47,640	58,167	58,360	60,967	0.1	6.6

주 : 1) 2013년 매출액 기준

2) '식료품 제조업' 및 '음료 제조업' 중 도축업,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곡물 도정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 식품 제조업, 알코올음료 제조업, 생수 생산업 제외

3) 12월 결산법인 식품 공시기업 총 580개 중 2013년 매출액이 존재하는 기업 404개를 대상으로 산출(제3장 2.6의 경영성과 분석과는 총계가 상이함)

자료 : NICE신용평가정보(주)

## 2014년 식품산업 분석 보고서

---

발행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행인 / 정 기 택  
발행일 / 2014년 12월 31일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02)393-6333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www.khidi.or.kr](http://www.khidi.or.kr)

# 보건산업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KHISS보건산업 통계시스템



보건산업통계시스템은 유용성 높은 보건산업 통계의 수집·생산·제공을 통해 국내 보건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의료서비스, 고령친화산업 등 보건산업은 신성장동력 및 서비스 산업의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이러한 보건산업에 대한 국·내외 흐름을 KHISS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No.1 보건산업 통계포털, KHISS보건산업통계



모바일 홈페이지(<http://m.khiss.go.kr>)는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상관 없이 웹을 이용하여 언제나 보건산업통계를 조회할 수 있으며,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KHISS 모바일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는 산업

주간/월간 동향

글로벌보건산업동향

보건산업브리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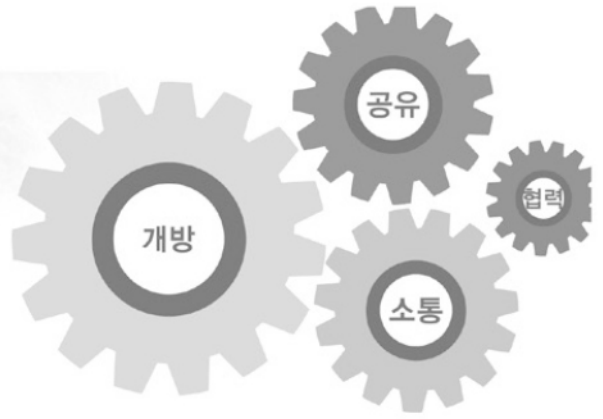
주요통계



**KHISS** 보건산업통계  
Korea Health Industry Statistics System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 정부 3.0



[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해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새 시대를 정부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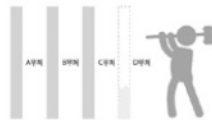
##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정부3.0



공공정보 공개확대로  
「국민의 알권리」충족



국민의  
정부정책 참여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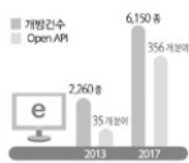
정부 내 칸막이 제거로  
통합적 행정서비스 제공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접근 제고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으로  
새로운 일자리창출



정보공유와 디지털협업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구현



창업과 기업활동  
지원 강화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 2014년 식품산업 분석 보고서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TEL : 043-713-8000(代) FAX : 043-713-8902 www.khidi.or.kr

**KHISS** 보건산업통계  
www.khiss.go.kr